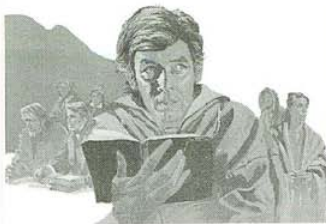


성도의 벗 11

1981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차 례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림볼
앤 앨튼 태너
매리온 지 롬니
고든 비 힐클리
십이사도 평의회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리그랜드 리차즈
하워드 더블류 헨터
토마스 에스 문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루스 알 맥콤키
앨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고 문
웬 러셀 발라드 이세
로렌 시 던
렉스 디 피네가
찰스 에이 디데이
조지 피 리
에프 엔지오 부쉬

물질적 구원의 원리 매리온 지 롬니 대관장단 제 2 보좌 1

가장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위하여 말 알 크리스텐슨 9

쿠앵가 형제의 신앙 프레드 알 글래드 이세 15

“그녀에게 내가 보냈다고 말하라 캐드린 스코트 17

성도를 위한 예배당을 건축함 로널드 시 바커 18

희생을 통한 성장과 발전 카마 리와 로이 에이 프레트 20

어린 영국 선원의 모험 (제1 부) 윌리엄 지 하틀리 23

미리안 레이 티 데릭 30

버스에서 올비드 줄링거 33

여명 로렌 시 던 36

우산을 만든 사람 프란세스 알트만 38

지하실 아이리스 신더가드 40

조셉 에프 스미스 하워드 보우너 44

지역 지도자 메시지 46

해외 소식 48

지역 소식 50

성도의 벗 1년 정기
구독료는 3,500원입니다.
일부호의 1권 구독료는
40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자는
800원입니다. 정기 구독료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벗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 권 : 제196호, 제17권 제11호
등 록 : 1967년 10월 4일, 라-932
발행일 : 1981년 11월 1일(월간지)
발행인 겸 편집인 : 유진 피 털
번 역 : 한국 번역 출판부 ☎ 724-6832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계 구차 514091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건 수

© 1981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관련 소유

물질적 구원의 원리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우리는 오늘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심각한 사태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러한 빈궁한 상태, 경제적인 긴장의 시대를 접하는 것이 처음은 아닙니다. 역사를 통해 볼 때, 성도들은 이와 같은 역경을 여러 차례 겪어 왔습니다. 그 결과로, 주님은 교회 초창기부터 그의 지도자들이 한 가지 원리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물질적 구원의 원리를 거듭 강조해야 한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금세기 초,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은 물질적인 구원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물질적인 구원과 영적인 구원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육과 영은 함께 한다는 생각을 늘 마음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그것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지상 생활을 하는 한, 그 둘이 서로 멀

어져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말일성도는 영적인 구원의 복음뿐 아니라 현세적 구원의 복음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과 정원과 농장..... 그리고 지상에서 우리 자신과 가족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밖의 것들을 돌봅니다.선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근면한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참으로 선하고 성실한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면의 복음, 경제의 복음, 그리고 절제의 복음을 전파합니다.”(복음 교리, 186페이지)

물질적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자신을 스스로 돌보는 자신의 자립과 가족을 부양하는 가족의 자립의 두 가지 기본 개념이 포함됩니다. 자신의 자립의 첫째 원리는 교회의 근본 교리인 자유의지의 교리에서 비롯됩니다. 자유의지의 교리는 인간의 가장 기본되는 정수는 영적인 것 또는 예지로 되어 있으며, 예지는 “하나님이 이를 놓아



“물질적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는 자신을 스스로 돌보는 자신의 자립과 가족을 부양하는 가족의 자립의 두가지 기본 개념이 포함됩니다.”

두신 범위 안에서 독립되어 있어 홀로 작용하나니……보라, 사람의 자유의지가 있으니”(교성 93 : 26—38 참조)라는 진리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원한 원리를 기초로, 엘로힘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이 지상에 두시어 스스로 살아가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가 인간 생활의 모든 면에 적용되므로 주님께서는 특별히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나 주가 모든 산 자를 위하여 만들고 마련하여 준 세상의 축복을 관할하는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모든 사람에게 지우게 함은 필요한 일임이니라.

“땅은 충만하고 충분하여 남는 것이 있나니, 참으로 내가 만물을 만들어 인간의 자녀들에게 이를 주어 자유의지대로 행동하게 하였느니라.”(교성 104 : 13, 17)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자신의 구원……물질 및 영적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둘째 지체의

상태에서, 즉 현세에서 약속된 유익을 성취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말하는 자신의 자립이란, 예지와 자유의지의 교리와 연관된 영원한 진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자가 가르치신 바에 따르면, 자신의 자립은 복음 계획의 기본되는 원리가 됩니다.

자신의 자립이란 기술과 능력을 향상시켜 자신의 필요 사항과 요구 사항을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자립은 자기 수련을 통하여 기술을 연마하고, 자제와 사랑으로서 그 기술을 자신과 이웃에게 축복이 되도록 사용하는 것까지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전진한 정신과 신체를 지닌 그의 모든 자녀들이 이 둘째 지체의 상태에서 그같이 행하기를 기대하신다는 사실은 노동—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개인적인 진지한 노동—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경전의 많은 성구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초에 주님께서 아담에게

“게으르지 말라. 게으른 자는 밥을
먹지도 말아야 하며 일꾼의 옷을 입지도
말아야 함이니라.”(교성 75 : 29)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창 3 : 19)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노동을 하여야 한다는 법칙
을 세우셨습니다. “옛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출 20 : 9)하라는 이 가
르침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주
님은 또다시 이 문제에 관해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게으르지 말라. 게으
른 자는 밥을 먹지도 말아야 하며 일꾼
의 옷을 입지도 말아야 함이니라.”(교성
42 : 42) “게으른 자는 회개하여 자기의
태도를 고치지 아니할진대 교회 안에서
일할 자리가 없으리라.”(교성 75 : 29)

이상의 여러 성구로 비추어 보아, 그
누구도 자신의 생계 유지에 대한 책임
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 해서도 안
되고 전가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회원은 마땅히 노동을 통
한 개인적인 성취에서 큰 만족을 찾아
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들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더우기 개인의 자립은 적어
도 개인의 필수 책임이라는 또 다른
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아빈아다이는
영적인 문제에 관하여서도 우리가 “심
판대 앞에 불러 나와 저마다 각각 행한
행위대로 선악간에 심판을”(모 16 : 10)
받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음
니다.

영적인 문제에서 각 사람이 자기의
선택과 행함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
듯이 물질적 또는 현세적인 문제에 대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궁핍할
때를 대비하여 근검 절약한다면 재정적
인 어려움을 쉽게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수입을 고려하지 않
고 많은 돈을 지출한다면 결산할 때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
다.

우리가 선택한 노동의 분야에서 기술
을 향상시키고 지식을 넓혀 왔다면, 기
회가 올 때 승진을 기대하거나 임금 인
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

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삶의 방편을 얻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스스로의 수고와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은연중에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실 수 있으나, 우리가 우리의 발을 스스로 움직일 때에만 비로소 우리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결국은 우리 스스로의 행동이 축복을 받게 하기도 하고, 받지 못하게도 합니다. 이것은 자유의지와 책임 원리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그 결과에 대하여도 개인적인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항상 행동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규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행동의 영향은 추수의 법인……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 6:7)에 따르게 됩니다.

이제 물질적 구원의 두번째 기본 원리인 가족의 자립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에서는 가족을 부양하고, 가족에게 의존하여 서로 성장하고 돕는다는 개념, 즉 가족의 자립을 자신의 자립과 근본적으로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가족은 교회의 기본되는 단위 조직입니다. 어떠한 매리인이나 기관이라도 가족을 대신할 수는 없으며, 대신하여서도 안됩니다. 거룩한 성약과 영화로운 신권하에 영원한 가족 단위가 수립됩니다. 성약의 일부로 맺는 약속으로써 남편은 가족을 부양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죽기까지는 남편에게 부양을 요구할 권리가 있나니,

“모든 자녀는 장성할 때까지는 양친에게 양육을 요구할 권리가 있느니라.”

(교리와 성약 83:2, 4)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딤후 5:8)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의 자신을 부양해야 할 책임, 축복, 기회는 본인 다음으로는 가족에게 있으니,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돌보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성약은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 부모가 원할 때에 부모를 부양하여야 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출 20:12)는 계명은 현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진 것이며, 교회의 모든 충실한 회원들에게 요구되는 계명입니다.

가족의 자립 원리의 특성은 어느 누구도 가족의 필요를 충족시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교회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요청해서는 안되는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주님께서 전하신 다음과 같은 말씀에 담긴 원리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장성한 후에 저들은 교회에 부양을 요구할 권리가 있느니라. 바꾸어 말하면 그 부모가 저들에게 상속할 것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주의 창고로부터 부양을 받을 권리가 있느니라.”(교성 83:5)

이 원리는 어느 누구를 위해서든지 모든 가족에게 예외없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다 더 하나님다운 행동을 하고 선한 소망을 갖고, 주님의 영을 얻는다면, 이러한 같은 원리가 친척, 곧 숙부, 숙모, 사촌, 형제 자매 등의 친척에게 널리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친척간에는 도와야 할 책임이 직계 가족만큼 크지는 않지만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며 각각 가진 대로 주린 자를 먹이고 벗은 자를 입히며 영적으로나 육신으로 병든 자를 찾아 저들의 원대로 구제하여 위로하”(모 4 : 26)라는 말씀의 의미를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이해하고 따를 때 우리는 결코 우리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보살핌의 대상이 되고 또한 우리의 도움으로 축복을 얻은 사람들의 생애에 맺어지는 가족적인 사랑의 열매를 그 누가 감히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이나 우리 자신의 현재의 영적인 상태에 관계없이, 우리의 친족에 대한 의롭고 사랑에 찬 열려의 궁극적인 영향을 어느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한”(고전 13 : 8)다는 말씀대로 행하려고 온전히 노력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생활의 변화와 행복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서 보시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도 형제와 자매, 친지를 위하여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자로 하여금 형제를 자기 자신처럼 여기게 하라. 너희 중 어떤 사람이 아들 열둘을 가졌는데 저들을 편애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한 아들에게 이르기를 예복을 입고 여기에 앉으라 하고 다른 아들에게 누더기를 입고 저기에 앉으라 이르고 나서 아들들을 바라보고 나를 공평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느냐? 보라, 이를 비유로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내가 존재함 같이 진실하도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니, 하나가 되라. 너희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나의 것이 아니니라.”(요한 17 : 25-27)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러한 상호간의 책임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계 가족은 서로 도움의 의무가 있으며, 친척도 서로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가 성숙될 때 우리는 기꺼이 서로 도울 수 있는 기회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립과 가족의 자립이라는 물질적 구원의 기본 개념을 염두에 두고 교회의 복지 계획, 개인 및 가족 예비 프로그램에 대한 권고와의 관계를 조사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현대는 분명히 개인과 가족이 예비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분명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개인이나 가족이 어느 정도로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가 받은 권고를 충실하게 지키는 것으로서 오늘날의 문제에 대처하는 최우선의 방법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첫째는 개인이요, 둘째는 가족입니다. 문제나 필요 사항이 개인이나 가족이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어도 감당할 수 없을 경우에만 우리는 감독을 통하여 교회의 협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감독은 일정한 지침에 따라 도움을 주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과 가족의 자립의 원리가 교회 복지 사업 프로그램의 중요한 일부임을 감독들에게 주시시켰습니다. 이처럼 개인과 가족 예비 프

로그래ムの 중요성을 강조하는 일이 와드 내의 개인이나 가족을 돕고자 하는 감독에게 지침이 되어 줄 것입니다. 감독은 도움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이 그에게 도움을 청하기 전에 그들 스스로가 어떻게 해주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복지 프로그램을 실시하던 초기에 제이 루벤 클라크 이세 부대관장님은 정신과 신체가 건강한……자립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권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수입 한도내에서 생활하십시오. 부채를 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예측할 수 없이 닥치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저축을 하십시오. 절약, 근면, 경제, 절제의 습관을 익히고 넓히십시오.”(대회 보고, 1937년 10월, 107페이지)

“모든 가족의 가장은 식량, 의복, 그리고 가능하면 연료까지 일년분을 예비하여 놓으시기 바랍니다……여분의 땅이 있으면 채소를 가꾸십시오. 농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농사를 지으십시오.”(대회 보고, 1937년 4월, 26페이지)

그렇다면 예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여러 해 전에 나에게 “일년분의 비축 품목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매우 심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개인적인 의로움”이라고 진지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이미 권고하였던 바와 같이, 일년분의 식량이나 의복, 가능하면 연료까지도 비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현찰도 마련해야 하고, 적당한 건강 관리법과 집을 마련하고, 생명 보험도 들어야 한다고 권고

“모든 가족의 가장은
식량, 의복, 그리고
가능하면
연료까지
일년분을

예비하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분의 땅이 있으면
채소를 가꾸십시오.
농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농사를 지으십시오.”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인 및 가족 예비 프로그램은 이상 열거한 항목보다 훨씬 광범위한 부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사치나 허영을 기꺼이 버리겠다는 결의, 주요한 것을 구입할 때 신중하게 검토하는 태도, 그리고 우리의 수입 이상으로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는 태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보살

퍼 줄 것을 기대한 나머지 이러한 권고를 따르고 있지 않음이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감독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큰 자원은 와드내의 개인과 가족 단위의 힘입니다. 회원들은 감독도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와드 회원을 도울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책임을 받은 감독만이 교회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자원에는 식량과 다른 생필품 또는 금식 기금 이외의 다른 것도 포함됩니다. 감독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는 식량보다 더 배부르게 하는 것, 의복과 연금보다 더 따뜻하게 해주는 것, 돈보다 더 오래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복음의 정수와 복음이 우리의 영적 및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우리를 돕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도움을 주는 데 감독의 우선되는 책임은, 성도들에게 그들의 요구 사항과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행해야 하는 올바른 원리를 가르침으로써 그들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감독은 또한 장기적인 문제를 극복하는 데 조언을 주고 훈련과 도움을 줄 수 있는 벨기세백 신권 정원회의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얻도록 협조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감독은 우선되는 책임의 하나로서 자신의 자립과 가족의 자립의 참 뜻을 가르쳐야 하며 사실 주님의 목자로서, 감독은 우리의 모든 필요 사항과 의로운 소망을 충족시키고 온전케 하며, 성별시키고, 정확시키고, 새롭게 하며, 유지시키고, 지지하고, 고취시키는 능력을 지니고 복음의 모든 원리를 가르

“감독의 우선되는 책임의 하나로서 자신의 자립과 가족의 자립의 참 뜻을 가르쳐야 합니다.”

쳐야 합니다. 감독은 자신의 상황을 판단하고 자신의 목표와 목적을 결정하며,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계획을 결정하여 자신의 길을 향해 안전하게 향해가기 위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도와 주어야 합니다.

감독은 우리를 대신해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독의 주요 역할은 상담자요, 막역한 친구입니다. 감독은 우리의 모든 급박한 필요 사항을 도와 줄 것입니다. 그러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도는 우리의 직계 가족이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얼마만큼 도왔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개인과 가족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대체로 교회의 자원은 다만 당면 문제와 그 해결책 사이의 간격을 메꾸어 주기 위한 일시적인 도움으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궁핍한 자를 돕는 것이 외에도, 우리 모두에게 복지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기억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중요하고도 영원한 진리를

가르치려고 하시며, 그중 가장 근본되는 사랑의 원리를 가르치시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자신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염려하고 관심을 가질 때 말할 수 없이 성장합니다. 다른 사람의 향상과 진보를 위하여 즐겁게 일하는 것……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주요 사업인 이상, 우리가 그의 사랑을 생활에서 실천하여 참된 그의 아들과 딸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가 지니신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몇 가지 기본적인 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1) 자신의 자립은 물질적, 현세적 구원의 영원하고도 중요한 원리입니다. (2) 가족의 자립은 물질적 구원의 중요한 원리이며, 여러 가지 현세적, 물질적인 문제의 해답입니다. (3) 회원들 가운데에는 자신에게 필요한 우선 순위를 재검토하여 “사치품”을 다시 정리하여 배격하고 보다 현실적인 필수품을 준비하여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4) 회원은 감독의 일정한 지침을 따라야 하며 이 지침의 한계내에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영감에 찬 도움으로 교회의 원리를 실행한다는 복지 사업에서의 감독의 역할을 이해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또한 모든 말일성도로 하여금 자신의 개인 및 가족 예비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그들이 자급 자족할 수 있는 원리를 즉시 실천하기를 권고합니다. 우리가 가족 회의에서 이러한 진리를 토론하고, 이러한 원리를 실

천하기 위하여 우리의 능력이 미치는 한도내에서의 계획을 세운다면 우리는 모두 주님의 다음과 같은 약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너희에게 준비가 갖추어져 있으면 무서워하지 않게 되리라.” (교성 38 : 30)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근면하고 의롭게 생활하면 우리는 더 큰 약속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충실하며 올바르게 지혜로운 관리인은 누구든지 그 주의 기쁨에 참여하여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교성 51 : 19)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자신과 가족을 위해 일하고 그들을 부양할 책임의 중요성에 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하거나 준비를 갖추도록써 얻게 된 축복에 관한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한다. 가족에게 개인 및 가족의 자립에 대하여 생각하는 바를 말하게 한다.

2. 재정적 또는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 가족이 그것을 극복해 내는 방법에 대하여 토론한다.

3. 탐니 부대관장이 제언하신 바와 같이 교회 회원이 긴급 사태에 대비하는 것은 왜 필요한가?

4. 이 기사 중에서 가족이 소리내어 읽을 만한 인용구나 성구 또는 여러본이 그들과 함께 읽고자 하는 보충 성구가 있는가?

5. 이 토론은 가정과 함께 사전에 환담을 나누고 나서 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겠는가? 가장에게 전해 줄 개인 및 가족 예비 프로그램에 관한 정원회 회장 또는 감독의 메시지는 없는가? *

가장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위하여

발 알 크리스텐슨



몇 달 전에 나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었다. 여러 해 동안 서로 만나지 못했었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몰라보게 변해 있었다. 어떤 친구는 머리 스타일이 많이 즐었고, 어떤 친구는 체중이 불어 있었으며 또 어떤 친구는 오히려 여위어 있었다.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크게 변화된 것도 흥미로웠다.

그러나 나의 관심은 특별히 한 여인의 변화에 쏠렸다. 고등 학교 시절의 그녀는 상당히 수줍음을 타는 편이었고 남자들 사이에 이렇다 할 인기도 없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아름답고 열성적인 여성이 되어 있었으며, 그녀의 영적, 정서적인 성장도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다. 그날 저녁 내내 나는 그녀와 그녀의 남편을 지켜 보았다. 그리고 곧 나는 그녀가 그토록 평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게 된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녀는 적극적으로 협조적인 배우자를 맞이하게 되어 그 두 사람은 여러 해 동안 그토록 성숙하고 행복한 부부로 발전하였던 것이었다.

그들을 주의깊게 살펴본 나는 결혼 후, 개인의 성장은 배우자의 적극적이거나 또는 소극적인 태도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사실 우리가 아내나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의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우리의 배우자는 노예가 되거나 불평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생산적이며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상대방을 대하는 방법에 따라서 두 사람이 모두 발전할 수 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 사랑하는 마음이 더해진다.

긍정적인 시도

몇 해 전, 어느 한 여인이 남편의 행동에 대해 나에게 불평을 늘어놓았던 적이 있다. 나는 그녀에게 남편의 태도를 설명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녀는 남편이 보편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밤 늦게 집에 들어와서는 집안이 지저분하다고 불평을 한다는 것이다. 간혹 저녁이 제시간에 준비되지 않으면 심한 책망이 쏟아져 나왔다. 반면에 그녀도 남편이 원하는 만큼 아름답거나 지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자녀들에 대하여서도 부정적이어서 늘 야단을 쳤다.

나는 그녀에게 남편에 대한 그녀의 태도를 설명해 달라고 하였다. 그녀는 대부분 의도적으로 남편의 기분을 상하게 했노라고 솔직하게 인정하였다. 사실 그녀는 남편의 성미를 돋우기 위하여 일부러 식사를 늦게 준비하였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름답게 가꾸라고 종용하면 할수록 그녀는 더 아름답게 가꾸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다. 집안은 그녀가 치우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지저분한 상대로 방치되기가 일쑤였다. 그녀는 남편을 기쁘게 하거나 칭찬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나는 그들의 결혼 생활에 근본적으로 사랑이 존재하고, 또 서로에게 보다 긍정적인 태도로 임하려고 노력한다면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느꼈다. 나는 그녀에게 집에 돌아가서 몸매무새를 아름답게 가꾸고,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양서를 읽으며 보다 흥미를 갖고 아름답게 보이도록 노력하라고 조언하였다. 또한 그녀에게 매일 밤 미소와 긍정적인 태도로 남편을 맞으라는 권고도 잊지 않았다.

이와 같은 돌연한 변화에 남편은 크게 놀랐다. 처음에는 뭔가 일이 잘못되고 있거나 아니면 아내가 딴 속셈이 있을 것이라는 의구심으로 대하였다. 그러나 아내가 계속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자 그는 아내가 그에게 주는 특별한 관심을 기쁘게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기꺼이 즐거움을 표시하였다. 그는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자녀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결혼 생활은 곧 아름답고 생산적인 것으로 호전되었다.

부정적인 태도를 돌이킴

사람이 단지 자신의 부정적인 태도를

배우자에게

특별한 사랑을

표현하거나 그가 자기에게 베푸는

좋은 일에 대하여

긍정적인 말을 하지 않은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도 흔하다.

긍정적인 태도로 바꾸는 것만으로 많은 훌륭한 일들을 이룰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부러 배우자를 무시하려 하지는 않지만 상대방의 좋은 점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배우자에게 특별한 사랑을 표현하거나 그가 자기에게 베푸는 좋은 일에 대하여 긍정적인 말을 하지 않은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도 흔하다. 감독의 주선으로 한 부부를 만난 일이 있었다. 그들이 나에게 각각 상대방에 대한 불평을 쏟아 놓기 시작하자 나는 그들의 대화가 보다 부드러워지도록 그들이 처음에 상대방에게서 존경하였던 성품, 그들이 서로 함께 나누었던 즐거움, 그들이 오래 전에 세웠던 상호간의 목표……로 이끌어 갔다. 그들은 가족과 친구와 그들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람들에 관하여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두말할 것도 없이 그들은 이러한 대화에서 즐거움을 느꼈고 그들이 성공적으로 달성한 재정 목표에까지 대화가 연결되었다.

대화가 계속되면서 차차로 서로의 적대감이 사라졌다. 몇 번 더 만나 이야기하면서 그 부부는 그들의 결혼 생활을 새롭게 시작할 것을 찬성하였다.

반응

많은 결혼 생활이 “부정적인 반응(negative feedback)”으로 인하여 생산적이고 유익한 방향으로 발전하지 못한다. 올바른 정신으로 반응이 주어지지 않을 때 반응은 오히려 결혼 생활에 해를 주게 된다. 또한 합당하지 못할 때,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또는 그 의미를 명백하게 하기에 충분하지 못할 때 반응이 주어지는 경우가 흔하다. 결혼 생활

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가치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그것을 요구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배우자는 그가 부모로서, 조달자로서, 신권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가를 알고 싶어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정보는 요청이 있을 때에만 주어져야 한다.

비판하기 전에 질문함

결혼 생활에서, 배우자로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말을 듣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오직 부정적인 것만을 듣는 것은 진실로 두 사람의 사이를 좌절시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비판하는 것을 극히 조심하며, 시드니 비시몬 박사의 제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 다음에 행동을 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부정적 비판, 일리노이 : 아거스 커뮤니케이션선, 1978년)

1. 나의 배우자는 지금 나의 비판을 받아들일 정신적 준비가 되어 있는가? 때때로 우리는 때를 가리지 않고 비판하는 경우가 있다. 매우 화가 났거나 피곤할 때 비난의 말을 던진다. 배우자가 직장에서 집에 늦게 돌아와 저녁 시간을 방해할 수도 있다. 어떤 부모는 십대의 자녀가 집에 돌아오기를 밤새워 기다리다가 이른 아침엔 야단을 치는 것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만다. 그러나 자녀가 일단 집에 무사히 돌아온 것을 기뻐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나서 휴식을 취한 다음 그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할 시간을 갖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2. 비판을 한 후에 그 비판에 대하여 배우자와 함께 이야기할 시간을 기꺼이 할애하는가? 상대방이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없을 때 무언의 비난이 가해지게 된다. 어느 사람은 그가 직장 일로 지팡이 출장을 떠날 때 아내가 한 부정적인 비판의 말로 기분 상했던 일에 대해 설명하였다. 비판한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충분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기분이 상한 상태에서 떠났고 그로 인하여 여행을 하면서 내내 기분이 나빴던 것이었다.

3. 나의 배우자는 이와 똑같은 비판의 말을 전에 몇 차례나 들었는가? 상대방에게 창고나 부엌을 치우라거나, 옷을 제자리에 걸어 놓으라거나, 자녀의 요구에 좀더 적극적으로 응해 달라는 등의 요구를 해도 변화가 없을 때에는 다른 접근 방법을 고려해 본다. 우리는 같은 일에 대하여 끊임없이 비판과 잔소리를 들을 때 그것에 대하여 무감각해지는 경우가 많다.

4. 나의 비판이 배우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 때때로 우리는 수줍어한다거나, 뚱뚱하다거나, 여위었다거나, 경솔하다거나 무감각하다는 등의 이유로 비판하는 경우가 있다. 그와 같은 결점은 극복하기 매우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한 것일 수도 있다. 내가 아는 한 여인은 남편의 키가 좀 더 크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그 남편은 이제 더 이상 자랄 수 없으므로 이런 소망은 남편에게 실로 좌절감을 주었다. 이처럼 바꾸기 매우 어려운 태도나 행동에 대하여 비판이 가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우리 모두가 가능한 한 완전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지만 상대방이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 잘 감지해야 한다.

5. 부정적인 비판은 나 자신의 상한 기분, 두려운 생각, 심리적 욕구로 인한

감정의 표현인가? 사람이 자제력을 잃고 화가 난 상태에서 분풀이를 하는 것은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우리가 배우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제력을 잃게 되면 심장이 빨리 뛰고 감정적인 말을 하게 되며 결국 싸움이 되고 만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6. 나의 배우자는 지금 진실로 부정적인 비판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인가? 사랑하는 사람을 격려하는 수단으로서 바로 이 때에 사랑과 사려깊음을 보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며, 개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 사랑과 관용과 협조 안에서 그들은 그들의 생애의 목표를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좋은 태도에 대해 인정을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지적만을 받게 될 때 그들의 태도가 변화하기는 점점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맹점을 없앴

우리 모두에게는 나름대로의 맹점이 있다……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나 다른 사람은 발견할 수 있는 약점인 것이다. 결혼 생활에 있어서, 그러한 부족한 부분에 우리의 관심을 쏟게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비난의 말을 하는 저변에 숨은 동기는 상대방을 돕고자 하는 것이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난할 때는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많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비평을 기꺼이 듣고자 하면 배우자는 비평하기가 훨씬 쉬워지며, 여러분은 그것을 받아들여 변화시키기 훨씬 좋은 위치에 있게 된다.

배우자와 함께 대화할 시간을 갖도록 한다. 상대방에게 가정의 환경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의 배우자로서 여러분 자신의 행동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상대방에게 준다. 여러분이 어떻게 더 좋은 남편이나 아버지 또는 아내나 어머니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은 적당한 기회에 토론할 수 있는 좋은 질문이다. 그리고 사랑과 관심에 찬 비평이 가해질 때, 기대하는 변화는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긍정적인 결혼 생활의 단계

그렇다면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 긍정적인 면을 쌓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1. 목록을 작성한다. 여러분이 진실로 아끼고 여러분에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배우자에 관한 모든 것을 적는다. 구애 시절에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느껴졌었던 성품이나 태도를 있는 대로 다 정리해서 적는다.

한번은 내가 어느 부부에게 이렇게 해보도록 권유한 일이 있었다. 그들은 내가 제시한 그 방법을 시도해 보기도 전에, 상대방에게서 느끼는 긍정적인 면이라고는 기껏해야 두세 가지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리 솜씨”나 “유우머 감각” 등과 같은 몇 가지 분명한 항목이 나열되기 시작하였는데, 곧 그 목록에는 평소 잘 깨닫지는 못했으나, 상대방이 아직도 가지고 있는 좋은 품성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얼마간 이 작업을 계속한 그들은 두 사람 모두 좋은 성품이 많이 나열된 목록을 갖게 되는데 서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2. 상대방의 재능을 공공연하게 칭찬

한다. 여러분이 배우자를 아낀다는 것을 자녀, 친구, 친지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뽐낸다는 생각이나 이기적인 생각을 배제하고도 할 수 있는 일이다. 단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여러분의 배우자의 훌륭한 성품과 태도로 이끌면 되는 것이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것을 듣기 좋아할 것이며, 비슷한 방법으로 보답할 것이다.

3. 부정적으로 표출되는 감정을 억제한다. 분노를 폭발하고, 공공 석상에서 배우자를 비난하거나 가정에서 난폭한 행동을 할 때, 그것은 심각한 양상으로 발전되기도 하고 실제로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감정이 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 낭만적인 사랑의 불을 다시 당긴다. 배우자와 함께 즐겼던 낭만적인 사랑과 교제를 다시 누리 본다. 함께 지냈던 즐거운 시간, 아름다운 추억, 한 때는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것이었던 긴 대화 등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을 나눌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찾는다. 다시 한번 연애 감정에 빠져 본다.

5. 부드럽게 말한다. 긍정적인 분위기가 지배하는 가정에서는 가족들이 서로를 존중하여 거칠고 큰소리가 나지 않는다. 분노가 일상 생활의 일부일 수는 없다. 항상 고상한 언어는 상대방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성장하도록 격려하게 된다.

6. 고결한 성품을 지속시킨다. 배우자들이 항상 정직과 고결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신뢰와 사랑은 긍정적인 관계를 수립하는 데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을 돕고 싶어요.”

커다란 도움을 주며... 회개와 용서는 잃게 된 고결성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

7. 영적인 신앙을 새롭게 한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이 존재하는 가정에서는 영적인 신앙이 일반적으로 결핍되어 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기도하고 경전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은 그들과 가족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복음을 생활화함으로써 오는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교회에서 봉사해야 한다. 주님의 사업에 헌신하는 것은 우리 생활에 긍정적인 감정과 태도를 낳게 될 것이다.

결혼한 사람들은 각기 자기 자신을 지각이 뛰어난 중요한 사람으로 여긴다. 이러한 긍정적 견해가 강화되면 우리는 더욱 빨리 변화에 응하게 된다. 배우자로서 우리는 상대방의 부정적인 성품을 꼬집으면서 살거나, 아니면 친절하고 진실한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써 상대방의 긍정적 성품을 강화시킬 수 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다음에는 당신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하면서도 배우는 것이 있지요.” “당신을 돕고 싶어요.”

이와 같은 긍정적인 대화가 오가며 이루어지는 결혼 생활은 아름답고 오래 기억될 소중한 경험으로 남을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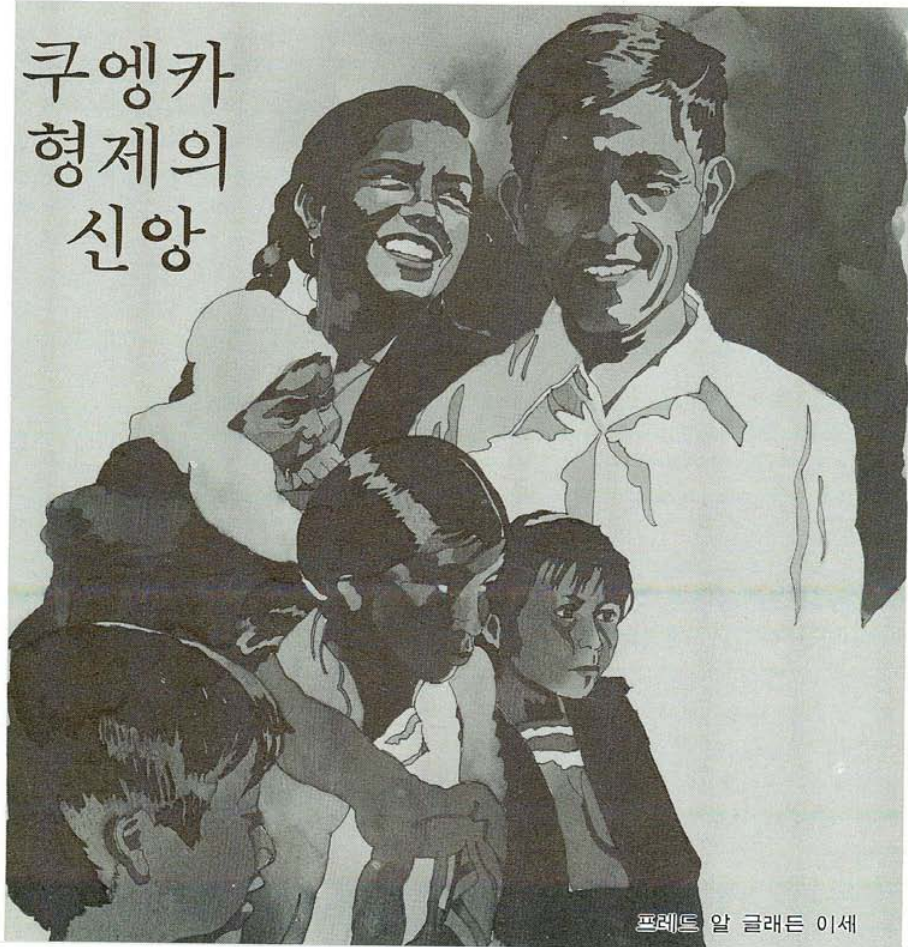
선 교사 지구 대회가 끝난 후, 나는 동반자와 함께 오후에 만날 구도자와의 약속을 준비하기 위하여 캘리포니아주 프레스노 시내에 있는 우리의 조그마한 아파트로 돌아왔다. 12월 16일이었다. 나는 그 가족 구도자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칩베를 줄 수 있게 되기를 원했다. 우리는 차가운 마루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였다.

그날 오후 우리는 가가호호 방문을 하다가 최근에 만난 식구가 15명이나

되는 쿠엥카 가족을 방문하기 위하여 도시의 동쪽 변두리에 있는 멕시코인 마을로 차를 몰았다. 우리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우리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반갑게 맞아 주었다. 우리는 13명의 어린 손들을 여러 번씩 붙들고 악수를 한 후에야 겨우 복음 토론을 시작할 수 있었다.

나의 동반자가 서툰 스페인어로 제일 개념을 가르치고 있는 동안 나는 쿠엥카 가정의 빈곤을 눈여겨 보았다. 방에 가구라곤 소파 하나와 부엌에서 가

쿠엥카 형제의 신앙



저 온 몇 개의 부서진 의자뿐이었으며, 그 가운데에서 열 다섯 명의 가족은 열심히 복음 토론에 킁기울이고 있었다. 내가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자 영은 나에게 그들에게 침례를 받을 것을 권하게 하였다. 그들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쿠엥카 가족은 영적으로는 부유하였으나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였다. 쿠엥카 형제는 시간당 2불 80전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었다. 그는 우리에게, 음식이 있으면 먹지만 대개는 굶는 적이 많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쿠엥카 가족은 선교사를 “하늘에서 온 천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음식을 대접하였다. 나는 그들의 변변치 못한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의 굶주린 갈색 눈을 바라보았을 때 내가 천사와 같다는 생각은 전혀 할 수가 없었다. 아무리 변변찮은 음식일지라도 그들이 우리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대단한 희생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주님께 우리가 가르치는 계명을 쿠엥카 가족이 신앙으로써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간구하였다. 그러나 나의 작은 신앙으로, 나는 그들이 십일조의 법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우리는 가족에게 계속 공과를 가르쳤으며, 어쩔 수 없이, 십일조의 원리를 가르칠 시간이 오고 말았다. 나의 동반자가 토론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 나는 조용히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였다. 여전히 흔들리는 신앙을 가지고 나는 그 가족을 가르쳤다. 그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친 다른 계명들과 마찬가지로 십일조의 계명도 순종하기로 약속하였다. 고요한 평화가 나의 온몸을 감

쌌다. 나는 구세주의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끄러움을 느꼈다.

가족은 침례를 받았다. 성탄절에 그들이 줄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사랑과 그들 자신뿐이었다. 그들은 노래와 춤과 이야기로써 우리에게 그들의 문화를 가르쳐 주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장난감과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 그런 다음 쿠엥카 형제가 성탄절 기도를 인도하였다. 그날 밤 나는 이번 성탄절이 내 생애에서 가장 훌륭한 성탄절이었다고 생각하였다. 쿠엥카 가족은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 곧 그들의 사랑을 주었던 것이다. 곧 이월이 되었고, 나의 선교사업도 거의 끝나갈 때였다. 나는 금식 간증회에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회원을 위하여 통역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쿠엥카 형제가 간증을 하기 위하여 나오는 것을 보았을 때 목이 콕 메어 올음을 느꼈다.

그는 당당하게 연단에 섰다. 그가 간증하기 시작하자 나의 두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선교사를 저의 집에 보내 주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고 십일조를 바친 후로는 항상 먹을 식량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때때로 저는 이 식량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나의 선교사 기간은 끝났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신앙, 순종, 축복을 가르쳐 주셨던 멕시코 마을의 작은 집은 항상 기억할 것이다. *

프레드 알 글래든 이세는 브라질 영 대학교의 재학생으로서 유타주 프로보의 선교사 훈련 센터에서 스페인어를 가르치고 있다.

“그녀에게 내가 보냈다고 말하라”

캐드린 스코트

나는 교회 복도에 서서 최근에 우리
와드로 옮겨 온 자매와 이야기하
고 있었다. 모든 새로운 자매들을 반
갑게 맞아 우리의 사랑을 그들에게 확
신시켜 주는 것은 상호부조회 회장인
나의 책임이었다. 나는 그 자매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녀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느꼈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느낌은 단
순히 나의 상상일 거라고 무시해 버렸
다.

그로부터 두 주일이 지난 어느 날, 집
안 일을 하고 있을 때, XX자매에게
“가서 이야기를 나누라.”는 말이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큰소리로 “내가 그녀
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라고 하
자 “그녀에게 내가 보냈다고 말하라.”는
목소리가 들려 왔다. 나는 이 지시가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았다. 나
는 성령의 속삭임을 무시할 수 없었다.

다음 일요일에 나는 그 자매에게 개
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
녀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 영
이 나에게 전한 말씀을 다시 되뇌인
다는 것은 약간 어색할 것 같았으며, 혹
내가 착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저 제가 도와 드릴 일이 없을까요? 주님이 저를 자매님에게 보내셨어요.” 그 말을 하자 놀랍게도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 눈물은 자기 연민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지난 두 달 동안 저는 제 어려움을 누군가와 의논할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해 왔어요.”라고 그녀가 말했다.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자매님, 자매님이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갖고 계신지 저는 모릅니다. 다만 자매님이 그 문제를 이야기할 사람이 바로 저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녀가 불행한 이유를 말하였을 때, 나는 그녀의 문제를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도 그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녀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사랑으로 감쌀 수 있었다. 나는 어떤 특정한 인비 사항은 감독의 권능과 지혜를 빌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사건은 다만 듣고 이해해 줄 사람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영은 나에게 다른 때에도 이와 유사한 도움을 줄 것을 지시해 준 일이 있었다.

그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또 그 결과에도 놀라게 된다. 하지만 누군가 열심히 듣고 순종할 사람이 없다면 주님의 사업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겠는가? *

캐드린 스코트 자매는 다섯 자녀의 어머니로서 영국 세인트 엘반스 스테이크의 공보 책임자이다.

성도를 위한 예배당을 건축함

로널드 시 바커

예배당을 짓는 것은 단순한 부동산 업이나 건축업자와 거래하는 것 이상의 일이다. 여러 해 전, 내가 솔트레이크 헌터 웨스트 스테이크의 에반스 티 독시 부장의 보좌로서 봉사하고 있을 때, 나는 예배당 부지를 구입하라는 지명을 받았다. 그 지역에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자 더 많은 예배당이 절실히 요구되었던 것이었다. 스테이크내에는 단 두 개의 건물밖에 없었으며, 이 건물에서 각각 4개의 와드가 모임을 갖고 있었다.

우리는 신중하게 바람직한 부지를 선택하였으나, 여러 달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입할 수가 없었다. 북쪽에 위치했던 부지는 도시 계획에 걸려 있었고 남쪽의 부지는 당국에서 건축 허가를 내줄 수 없는 곳이었다. 네번째 부지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하수 시설에 상당한 비용이 요구되어서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는 가운데 이년이 지나 거의 모든 와드가 분리되어야 할 입장까지 이르렀다. 조속히 어떤 조처든 취해야 했다.

독시 부장은 주님의 도움을 구하기

예배당을 짓는 것은 단순한 부동산업이나
건축업자와 거래하는 것 이상의 일이다.

위하여 스테이크에 금식 기도를 지시했고 그런 이틀 후에 제일 처음에 보았던 부지의 소유자가 전화를 걸어 와 토지의 매입이 가능하다고 전해 왔다.

그 즈음에 스테이크를 분리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었으며, 독시 부장은 나에게 새로운 스테이크 부지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세밀히 연구하고 기도한 후 우리는 헌터 제 6와드의 두가정이 소유하고 있는 약 4,000평의 부지가 적합하다고 결정했다. 감독은 내가 각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추천해 주었다. 첫번째 가족은 약 1,000평의 땅을 기부하기로 쾌히 승낙하였다. 두번째 부부를 만났을 때, 개종한 지 1년밖에 안되는 남편은 “형제님께서 우리 부부를 만나자고 하신 이유를 압니다.”라고 말을 시작했다.

그는 전날 바로 이 사무실로 불러 온 꿈을 꾸었다는 것이었다. 똑같은 사람들이 모두 거기에 있었고, 내가 그의 이웃이 스테이크 부지를 위하여 1,000평의 땅을 기부하였다고 설명하면서 그에게도 그렇게 할 것을 부탁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는 아내를 깨워서 꿈 이야기를

를 하고는 다시 잠이 들었다. 그러자 두번째에도 똑같은 꿈을 꾸었다. 다시 아내를 깨워 꿈 이야기를 하고는 다시 잠이 들었다. 그리고는 또 세번째 똑같은 꿈을 꾸고 아내를 깨웠다. 그러자 아내는 “그 땅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 잠 좀 주무세요!”라고 말하였다는 것이었다.

새로운 스테이크 센터가 이제 이상적인 부지에 건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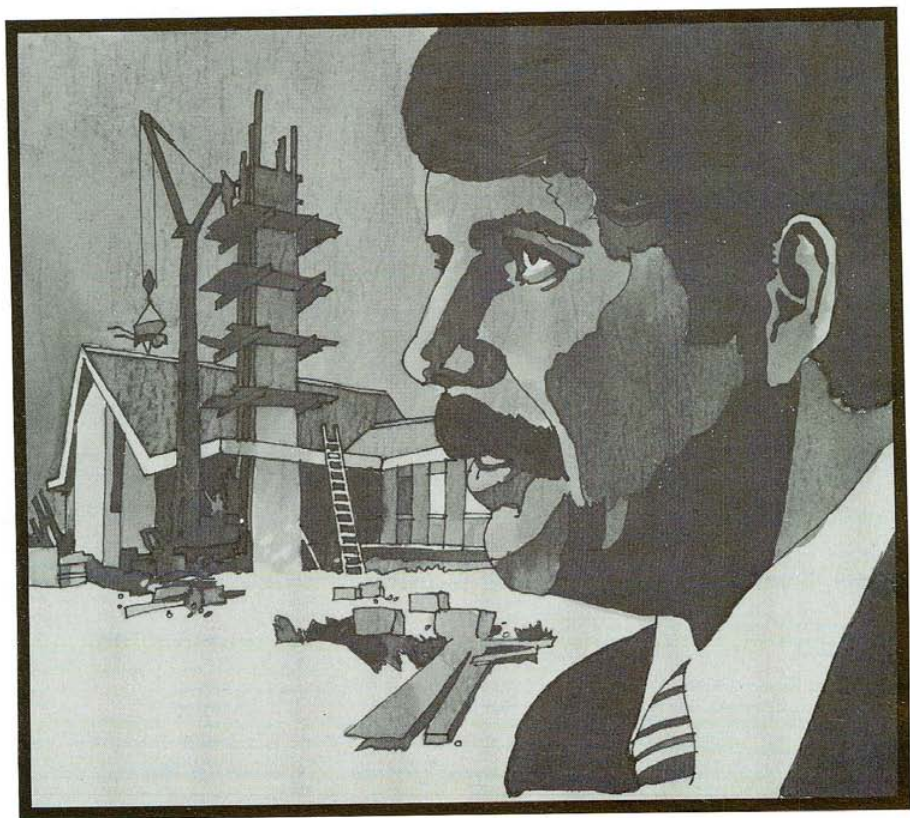
스테이크가 분리된 후, 헌터 중앙 스테이크를 관장하도록 부름을 받은 독시 부장은 또다시 나에게 건축 부지를 확보하라고 부름을 주었다. 이번에는 스테이크의 신앙이 좋은 과부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었다. 그녀에게 접근하자 그녀는 땅을 팔 생각은 없고 스테이크에 기부하고 싶다고 말하였다.

거듭된 이같은 경험은 나에게 교회 회원들의 진실성, 사랑, 그리고 관대함을 가르쳐 주었다. 또한 그들은 나에게 주님께 이러한 행사에 친히 관여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

로널드 시 바커 형제는 아홉 자녀의 아버지이며 변호사로서, 현재 솔트레이크 헌터 중앙 스테이크 부장단 제1보좌로 봉사하고 있다.

희생을 통한 성장과 발전

카마 리와 로이 에이 프레트



“희생은 하늘 축복 가져 오나니”

1977년, 새로이 조직된 캐나다의 온테리오주 오타와 스테이크는 몇 가지 특이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오타와에 본부를 두고 있는 이 넓은 스테이크는 퀘벡주의 일부인 동부 온테리오와 뉴욕주의 북부를 관할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스테이크는 여러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스테이크에는 캐나다 몬트리올에 중국인 지부가 있어 홍콩에서 온 두 명의 선교사들이 복음 전파를 돕고 있으며, 캐나다 호키스베리에는 2개 국어 사용(불어-영어) 지부가 있고, 뉴욕주 호간스버그에는 세인트 레지스 인디언 보호 지역의 레이맨인 지부도 있다.

새로운 스테이크의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적합한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었다. 많은 와드와 지부들이 빌딩이나 학교를 임대받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스테이크의 부장인 보이든 이 리 부장은 교회가 이 지역에서 급성장하게 되기 전에 적당한 예배당이 건축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느꼈다. 곧 스테이크 건물 5개년 계획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첫번째 해 연말에 나타난 결과는 너무나 보잘것없었다.

그래서 스테이크 부장단도 이년 동안 필요한 금액—필요 예산인 백만불—을 모금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다. 리 부장은 인플레이션과 재정 긴축 시대에 어떻게 짧은 기간 동안 그렇게 많은 금액을 회원들이 헌금할 수 있겠는가를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 결정에 대하여 크게 걱정하였다. 스테이크 특별 모임을 준비할 때 그는 스테이크 회원들에게 특별한 축복과 약속을 선포하고 그 축복을, 마치 개인에게 축복을 줄 때와 마찬가지로, 신권의 권능으로 인봉하여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하였다. 그는 처음에는 다소 망설였지만 그 느낌이 점점 강해졌으므로 결국은 떨쳐 버릴 수가 없었다.

스테이크 건축 기금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발표되었다. 모임이 끝날 때 리 부장은 스테이크 회원에게 축복을 하며 그들이 최선을 다하면 주님께서 문을 여시어 그들의 건축 기금 예정액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이 약속은 스테이크 각 회원에게 신권의 권능으로 인봉되었다.

그 결과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다. 8개월 동안 직장을 구하지 못하였던 한

젊은 귀환 선교사는 감독님이 그에게 일정한 액수의 기금을 현금하도록 제안하였을 때 회의적이었다. 그러나 그는 수입이 생긴다면 주님께 그 예정액을 다 바치고 그러고 나서도 더 필요하다면 그 이상이라도 바치겠다고 말하였다. 그날 그가 찾아가던 첫번째 기업주가 그를 채용하였고 그는 다음날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후에 그의 급료는 믿기 어려울 만큼 인상되었다.

파산의 내리막 길을 달리고 있던 어느 실업가도 갑자기 생산품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곧 착수하여 총력을 기울여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판매량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보고를 받게 되었다.

공직에 있던 어느 회원은 감독님이 책정하신 금액을 어떻게 바칠 수 있을 까를 생각하고 있었다.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한 가지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다. “봉급 인상을 청구하라. 그렇게 하면 해결 된다.” 그 메시지는 너무도 분명하여 그는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자신의 수입으로 지불할 수 있는 양을 계산한 후, 그는 그가 필요한 금액에 맞는 급료 인상을 청구하였다. 놀랍게도 그의 신청이 승인되었다. 더우기 1년을 소급하여 실시된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임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되었다.

4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는 식탁에 둘러앉아 건축 기금 예정액을 바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 그날 저녁 이웃집 여인으로부터 어린 아이들을 봐 줄 수 있겠느냐는 전화가 걸려 왔다. 약 6주 전에는 그 어린이들을 돌봐 주겠다는 이 자매의 제언은 자매가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비싸다는 이

유로 거절당했었다. 이웃집 여자는 그날 오후 이 자매가 어떤 사람을 정성스럽게 보살피는 것을 보고 그렇게만 보살펴 준다면 돈이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하였다고 설명하는 것이었다.

전쟁 포로였던 어느 형제는 그가 다른 특별한 목적으로 저축을 해 두었던 돈을 인출해 내야 했다. 그때 그는 캐나다 전쟁 포로에 대한 연금 제도 소식을 듣게 되었고 자기도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사실 그는 연금을 소급해서 받았는데 그 액수는 그의 건축 예산으로 바치려고 인출한 액수보다 더 많았다.

그 외에도 이와 유사한 경험이 많이 보고되었다. 직장을 구하고, 승진되고, 하잘것 없어 보이던 물건의 값이 많이 오르고 오랫동안 잊혀졌던 은행 구좌가 발견되고 유산을 받는 등등의 사건이 발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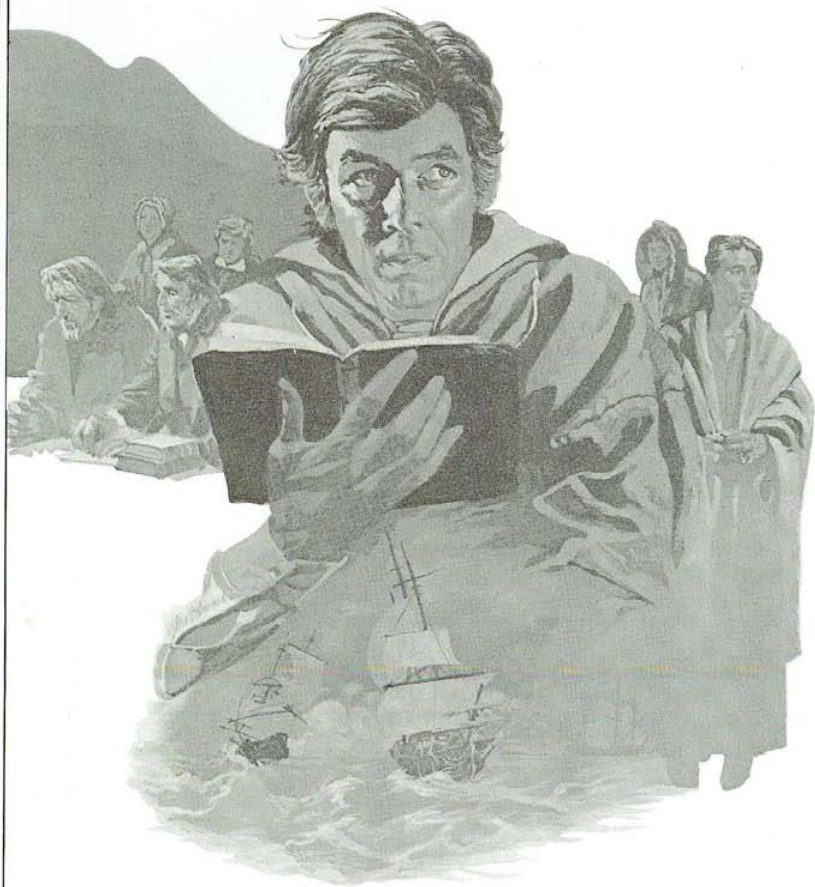
목표가 주어진 지 불과 2년 후에 80만 불이 스테이크 건축 기금으로 모금되었다. 이미 예배당 3개가 완공되었고 2개는 현재 공사중이며, 4개가 건축인가를 받았다. 이 건물들이 완공되면 스테이크의 16개 와드와 지부는 현대식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

“회생은 하늘 축복 가져 오나니”라는 찬송가의 구절이 이 스테이크의 경험을 통하여 절실히 느껴졌다. 우리의 특별한 건축 프로그램은 강해지는 영성과 늘어나는 개종자의 침례에서 결실을 맺고 있다. 1980년 7월 6일, 이 스테이크가 발족된 지 겨우 3년 반 만에 둘로 분리되어 오타와 온테리오 스테이크와 몬트리올 퀘벡 마운트 로얄 스테이크가 되었으니, 이렇게 해서 미래의 성장과 발전의 터전이 마련되는 것이다. *

어린 영국 선원의 모험

(제1부)

윌리엄 지 하틀리



11월이었다. 안개 낀 영국의 시골길을 가로질러 집을 향해 걸어가는 윌리엄 우드의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다. 십대의 푸주잔 견습생이었던 그는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운 이때에 해고를 당했던 것이다. 그는 마음이 아팠다. 아니 오히려 화가 났다고 하는 편이 낫겠다. 블랙살씨에게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해주었는데! 윌리엄은 말일성도가 되었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이었다. 그는 집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면서 그의 실직에 대한 부모님의 반응이 걱정되었다.

1837년에 윌리엄이 태어나자, 그의 부모는 그를 헌신적인 성공회 회원으로 키웠다. 열성적인 성공회 교인이었던 그의 어머니는 그가 아주 어렸을 때 “유아 학교”에 보냈다. 그는 그곳에서 철자법을 배우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돌아가신 구세주”에 대해 배웠다. 그는 또한 “거룩하고 경건한 것들”에 대해서도 배웠다고 말하였다.



윌리엄이 처음으로 말일성도를 만나게 된 것은 그가 13세가 되던 해였다. 아버지의 십부름을 가던중 그는 몇몇 아이들이 창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갑자기 어떤 신사가 그를 물론 모임이 시작되는 방안으로 안내하였다.

그는 이렇게 회상하였다. “방 구석에 앉았지요. 재미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읍니다. 그러나 거룩한 성찬을 축하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곳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성찬이 전달되고, 찬송을 부르고, 연사가 설교를 하였다. 마지막 연사는 후에 대관장단에서 봉사하였던 영국인 개종자 찰스 페로즈였다. 신회에 관한 그의 설명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을 뒤바꿔 놓았어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설교가 있다면 바로 이 설교일 것입니다.”라고 윌리엄은 말하였다.

해가 거듭될수록 윌리엄은 어릴 때부터 믿던 종교에 대한 반발이 점점 커지는 듯하였다. 15세가 되자 그는 푸주잔의 견습생이 되기 위하여 집을 떠났다. 그가 처음 만나게 된 주인은 조합 교회 신자로서 이 어린 성공회 교인을 개종시키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 경험은 나의 종교관을 더욱 불안정하게 하였다.”고 그는 인정하였다. 그는 또한 부근에 있는 수도원으로 고기를 배달하러 가서 그곳 천주교 수녀와도 종교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이와 같은 어려운 중에 윌리엄은 그의 좋은 친구 존 엠 브리지가 말일성도에 가입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 당시 물몬은 “마을의 유지들로부터 악평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윌리엄은 존을 나무랐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일이 끝난 후, 존은 그의 옛 친구에게 회복된 복음의 원리 몇 가지를 설명해 주었다. 윌리엄은 그 가르침이 논리에 맞다고 생각하여 에섹스주 멜든 지부의 말일성도 모임에 참석하기로 동의하였다. 그곳에서 느낀 우정과 교리는 그를 크게 감동시켰다.

존이 그와 함께 물몬이즘에 대하여 제일 처음으로 토론하였던 날로부터 3주 후에 윌리엄은 순회 장로인 조셉 실버와 존 린드세이에게 칙례를 베풀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1855년 4월 하순에 그는 멜든에 있는 블랙워터 강에서 칙례를 받았다. 그후 그는 곧 아론 신권의 제사로 성임되었다.

그러나 믿음으로 얻은 평안을 찾은 것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했다. “내가 물몬이 되었다는 소문이 곧 퍼졌지요. 사람들은 나를 보고 늙은 조 스미스, 늙은 브리감 영’이라고 조롱하였고 그들에 대하여도 폄박하였어요.” 친구, 친척, 고객, 과거의 주일학교 교사들은 그가 “실수한 것임을 알게” 하려 하였다. 1855년 그는 또 다른 새로운 제사(후에 그의 장인이 됨) 사무엘 젠트리와 함께 인근 마을에서 노천 집회를 인도하였다. 윌리엄의 친척이 간혹 참석하고는 “꼬마 빌리가 설교한다”는 말을 하였다. 설교는 젠트리가 했고 윌리엄은 기도만을 했는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였다. 어떤 친척은 공공연하게 그를 조롱하였다. 그러나 그와 같은 처사는 윌리엄으로 하여금 “더욱 진리의 원리에 가까이 가게” 만들 뿐이었다.

블랙살씨의 가족은 일요일 예배 때 윌리엄과 같은 좌석에 앉곤 하였는데, 그도 이 어린 전습공을 다시 개종시키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토론을 해도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었다. 마침내, 그 지역의 교구장과 같은 중요한 고객을 잃게 될 것을 염려한 블랙살씨는 윌리엄에게 “물몬교를 버리거나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찾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윌리엄은 “아저씨, 저는 제 신앙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곳을 떠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직장을 잃고 낙심에 찬 새로운 개종자는 최근에 템즈강 어귀 웨피섬의 킨스보르로 이사온 그의 부모에게 최근에 일어난 사태를 설명해야만 했다. 현재의 그의 가장 큰 소망은 많은 영국 개종자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시온으로 이주하는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줄곧, 그는 유타까지 가는 데에 충분한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였다.

윌리엄의 부모는 그들의 새로운 거처로 그를 따뜻하게 맞이하였다. 그러나 그가 직장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윌리엄에게 물몬교를 버리고 블랙살씨의 집으로 되돌아가라고 간청하였다.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는 몹시 슬퍼하셨지요.” 윌리엄이 말하였다. 그들은 윌리엄이 돈을 벌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걱

정하였고 그런 상황에서 그의 종교적인 확신은 아무런 평안도 주지 못하였다. “나는 부모님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내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직장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를 구할 수 있으리라는 신념을 가지고 윌리엄은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일자리를 얻기 위하여 온 섬을 돌아다녔다. 그는 영국, 불란서, 터어키 연합군이 러시아 군대와 싸운 크리미아 전쟁으로 인하여 쉬어니스 선창이 매우 바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영국 군단에게 고기를 공급하게 된 필모어라는 제육업자는 윌리엄이 일을 하기에는 너무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십대 소년인 윌리엄의 고기 썰는 기술을 보고는 그를 고용하였다. 임금은 블랙살씨가 주던 임금의 두 배가 넘는 임금이었다. 윌리엄은 60년 후에 이렇게 기록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임금 인상……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나는 물론 신앙을 지킬 수 있었고 계곡으로 가야 한다는 나의 기도와 변함없는 결의에 대한 응답이었기 때문입니다.”

윌리엄은 소의 사분의 일쯤되는 고기를 들어 올리다가 등을 다치게 되어, 그날부터 조선소에서 같은 임금을 받고 노동을 하게 되었다. 항구에서의 일은 그에게 상당히 흥미로운 것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매일 이 항구를 통해 나가고 들어오는 배들을 살펴보았다. 어느 날 그는 영국 해군함, 에이치 엠 에스 유로타스호가 곧 남태평양을 향하여 출항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는 곧 시온으로 가는 계획을 구체화시켰다. 그는 언젠가 캘리포니아 항구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유타로 여행하리라는 기대를 갖고 영국 해군에 입대하여 제육업자로서 유로타스호의 승무원으로 지원하였다.

그러나 일단 “28개 포를 장비한 순양함을 스크루 프로펠러선으로 변형하라”는 명령이 부두에 떨어지자 그의 이주의 꿈은 사라지고 말았다. 긴급 소집에서 지휘관이 “승무원 전원은 들으라. 우리는 크리미아 전선으로 향해한다!”는 비밀 명령을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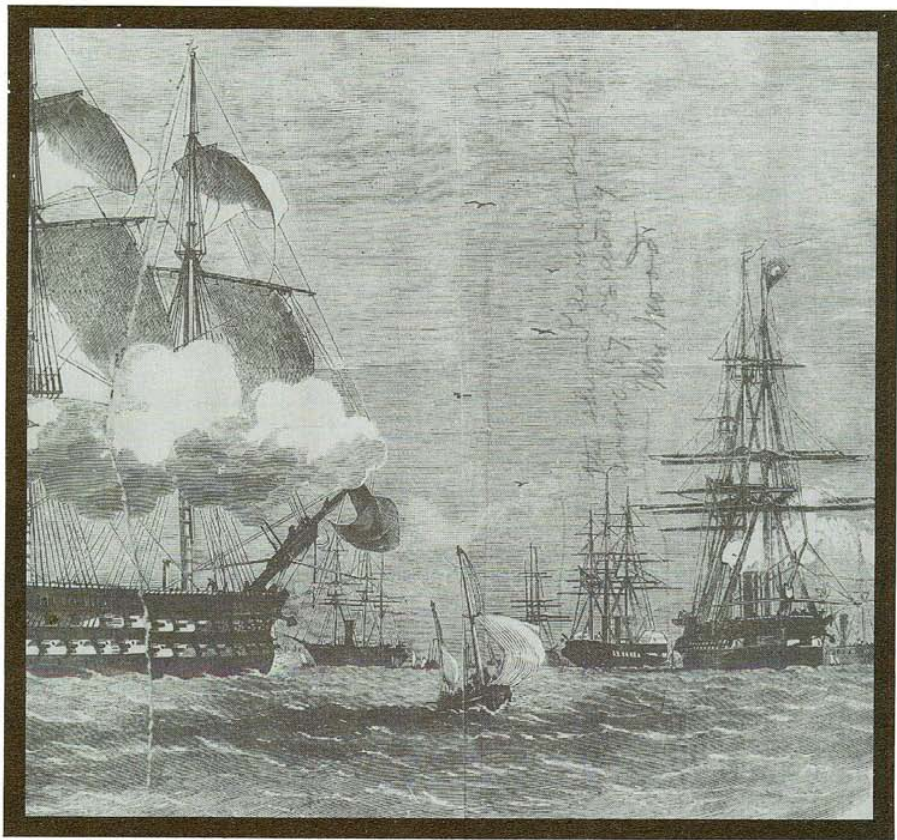
배는 승무원의 절반에 의해 운항되었으므로 윌리엄은 곧 여러 가지 항해술을 배웠다. 그는 후에 이렇게 기록하였다. “나는 푸주한으로서의 나의 일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끝낸 후에는 포병대의 승무원을 도와 그들이 하는 일을 모두 해야 했습니다. 포병대원들은 거의 예외없이 훌륭한 바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매우 실질적인 사람들 밑에서 항해사의 기술을 익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경험은 유타에서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포르투갈의 리스본, 알제이, 지브롤터, 말타, 터어키의 콘스탄티노플 등 정박하는 곳마다 윌리엄은 육지로 가서 승무원들을 먹일 고기를 구하였다. 항해 도중 그들은 크리미아로부터 “무서운” 전쟁 소식을 입수하였다.

크리미아 반도를 순항하던 유로타스호는 세바스토폴에 정박하였는데, 이곳은

영국군과 동맹군이 러시아군을 격침한 곳으로 양쪽의 많은 인명 피해를 낸 곳이었다. 다행스럽게도 윌리엄은 많은 영국군 진영 가운데에서 “야외 교회”를 세울 만큼의 말일성도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윌리엄은 열심히 모임에 참여하였다.

평화가 선포되자 유로타스호는 전쟁의 잉여 물자를 적재하고 쉬어니스항으로 되돌아왔다. 윌리엄은 잠시 가족을 방문하였는데 가족은 “아직도 그 이상한 종교(그들은 그렇게 불렀습니다)가 나의 온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에 매우 놀랐습니다.” 그는 그 지역의 성도들도 방문하였다. 푸주한과 선원으로서의 그의 기술을 높이 평가받아 그는 4년 동안 에이치 엠 리트리뷰션호에서 일하게 되었다.



윌리엄은 이 그림에서
우로부터 두번째 배가
그가 중국에서 일했던 배와 같다고 했다.

“나는 푸주한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나의 작은 고깃관을 관할하게까지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의 모든 일은 매일 사령관이 검사하여,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고 깨끗한지를 점검하였습니다. 그 작은 곳에서 나는 거의 4년 4개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리트리뷰션호는 지중해에서 크리미아 전쟁의 무기를 수집하였다. 우리는 북극해에서 잃은 배를 찾았다. 그러던 1857년 3월, 세계의 반을 돌아 중국 함대를 강화하고, 가는 길에 페루에 들러 내란을 진정하는 데 협조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리오데자네이로에서 그는 육지로 내려가 승무원들에게 먹일 닭고기, 쇠고기, 과일을 구입하였다. 그는 자기가 그곳에 밭을 디딘 최초의 말일성도의 한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1858년 5월 1일, 윌리엄의 21번째 생일에 그와 선원들은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상륙 허가를 받았다. 윌리엄은 영국을 떠나기 전에 브리감 영 대관장이 태평양 군도로 선교사들을 보냈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이 젊은 개종자는 성도들을 찾아보았으나 “성도에 대한 기록은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유타주로 진격해 오는 미연합국의 군대와 맞서기 위하여 교회는 가능하다면 태평양에 있는 선교사들을 모두 본국으로 소환하여 시운을 방어하는 데 돕도록 하였던 것을 그는 알지 못하였던 것이었다. 묘하게도 하와이에서 마지막으로 일하고 있던 장로들이 바로 윌리엄이 호놀룰루에 기항한 날 섬을 떠났던 것이다.

교회와의 교류에서 완전히 고립된 물론 선원은 끊임없이 자신의 신앙을 키워나갔다. 그는 그가 가져 온 “교회의 업적”이라는 책을 읽고 또 읽었다. 아론 신권의 제사인 그는 “성찬을 집행할 수 있는 제사의 권능에 대하여 들었다. 그는 재판 위의 그의 “고깃관”에서 자신의 성찬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나는 주님께 내가 성찬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인정해 줄 것을 자주 간구하였습니다.” 일요일, 배에서 예배가 끝난 후 윌리엄은 그의 방으로 돌아와 “나는 딱딱한 빵(배에서 먹는 빵)과 물을 식탁에 놓고 기도를 드린 후 빵과 물을 축복하고 그것을 먹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나는 많은 영적인 힘을 얻었습니다.”

리트리뷰션호가 여러 주 후 홍콩에 닿았을 때 프랑스와 영국이 중국과 전쟁을 하고 있었다. 크루저, 퓨리어스, 리, 도브호틀과 연합하여 리트리뷰션호는 여러 달 동안 적과 대치하게 되었다. 함대는 양자강을 따라 남경까지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총성이 멎을 때까지” 도시를 폭격하고, 전쟁에 참가하여 결국 전쟁이 끝나는 것을 도운 셈이 되었다. 다음날 사격이 계속될 때, 리트리뷰션호는 심한 피해를 입었는데, 윌리엄은 동료의 다리가 포탄을 맞아 잘려 나가는 것을 보았고, 다른 선원이 그를 구하려고 달려들다가 팔이 잘려 나가는 것을 보았다. 리트리뷰션호는 “커다란 건물 한 채를 태워버릴 수 있는 위력을 가진 24파운드짜리 로켓포를 쏘아 대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은 대피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중국 정

부가 항복을 해 왔고 리트리뷰션호는 홍콩의 영국 선창으로 돌아갔다.

다음에는 영국 정부가 전하는 선물인 특별한 요트를 경호하여 일본에 가져 가서 일본 황제에게 전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일본은 겨우 4년 전에 문호를 개방하여 서양과 교역을 하고 있었으니, 이는 1854년 미국의 매튜 시페리 해군 준장의 역사적인 방문의 결과였다. 일본 땅을 밟는 최초의 영국인의 한 사람이며, 아마 최초의 말일성도인 윌리엄은 이 여행에 기대가 컸다. 그는 일본인들에게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 “나는 그들에게서 내가 만나 보았던 다른 어떤 국민에게서도 느끼지 못했던 놀라운 개혁의 정신을 발견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싶은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그는 유타에서 칠십인으로 부름받았을 때, 일본으로 선교 사업의 부름을 받게 되기를 자주 간구하였다. 그러나 1901년, 히버 제이 그랜트 장로가 최초로 일본에 교회 선교부를 열게 되었을 때, 그는 이미 선교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늙어 있었다.

리트리뷰션호는 영국의 동인도 함대와 합쳐져 세계 일주를 계속하였다. 배는 실론(스리랑카)에서 3개월 정박하면서 침몰한 우편 보우트에서 돈, 기계, 다른 값진 것들을 인양했다.

실론을 떠나자 리트리뷰션호는 곧 산호초에 좌초되어 배 밑바닥이 갈라졌다. 위험을 최대한도로 줄이기 위해 “우리는 방수포를 바닥과 구멍에 깔았습니다.” 그리고는 항구를 향하여 전 속력으로 달렸다. “배를 수리하기 위하여 인도 봄베이에 석달 동안 머무는 동안 승무원들이 콜레라에 걸렸으며 나도 병에 걸렸습니다. 나는 곧 병원선으로 옮겨졌으며 주님께 목숨을 건져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는 회복하여 간호원을 도와 다른 병든 승무원을 간호하였다.

수선한 리트리뷰션호의 마지막 주요 임무는 두 척의 대형 증기선이 인도로부터 홍해에 이르는—카라치로부터 아덴까지—최초의 잠수 통신 케이블을 놓는 일을 돕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 1860년 10월에 본국으로 귀국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윌리엄의 배는 다시 적도를 지나 남서쪽으로 여행하여 희망봉을 돌아 아프리카 서해안으로 올라와서 마지막 적도를 지나 12월 20일 마침내 영국 포츠머스항에 기항함으로써 3년간에 걸친 세계 일주 여행을 마친 것이었다. 당시 어린 영국 선원이었던 윌리엄 우드는 전세계를 일주한 최초의 말일성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중의 한 사람이 된 것이다. 그는 용감하게 봉사한 공로로 받은 훈장을 주머니에 넣고는 집으로 달려가 성탄절 만찬을 들기 위하여 식탁에 둘러앉아 있던 그의 가족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다음 호에 계속—

미리안

레인 티 데릭

“그들
대부분이
내 얼굴을
집중적으로
때렸지요.
그래서
이가 모두
없어졌어요.”



Richard Hunt

에 쿠아도르의 아름다운 수도 퀴토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을 때, 나는 이웃을 개종시키기 위하여 자신을 완전히 희생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몸소 실천한 한 젊은 회원을 만나게 되었다. 그녀의 집은 퀴토에서 가장 보잘것 없는 집의 하나였으나……그녀의 마음은 아주 고결했다.

나는 그녀를 맨 처음 만났던 때를 잊을 수 없다. 그녀는 약 150센티 가량의 작은 키에 약간 위로 굽살거리는 갈색 머리가 목 아래까지 내려뜨려져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다른 동갑내기 여자들과 다르게 보인 한 가지 이유는 그녀에게 이가 없기 때문이었다. 아주 나이가 많은 여자였다면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닐 것이나 미리안의 나이는 겨우 열 아홉 살이었다.

“미리안의 이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녀의 집을 떠난 후 조금 있다가 나는 동반자에게 물었다.

“나도 그것이 궁금한데,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없었어요.”라고 그는 대답하였다.

바쁜 선교 사업 때문에 그 궁금증은 곧 잊혀졌다. 그러나 첫번째 방문이 있던 지 일주일 후에, 우리는 다시 미리안의 집으로 갔다. 그녀의 아버지 산체스 형제는 약 1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로 인하여 가정 생활이 어려워졌다. 이제는 산체스 자매가 세탁부로서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 오랜 시간을 일해야 했다. 따라서 미리안은 어머니가 일하러 나가신 동안 가족을 돌보아야 했기 때문에 학교를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그들은 오랫동안 정들었던 이웃을 떠나 이 조그만 단칸 집으로 이사해야 했다. 우리는 그들의 안전에 대하여 염

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으며, 자주 그들에게 들르겠다고 약속하였다.

이 특별한 날에, 미리안의 비물몬 친구인 로자도 왔으며, 미리안은 우리에게 복음에 대하여 로자에게도 조금 가르쳐 줄 것을 제안하였다. 우리는 그녀에게 토론의 일부를 가르쳐 주었다. 그러나 곧 그녀가 흥미없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도 우리는 그녀에게 우리가 다시 와서 다른 가족과 함께 우리의 메시지를 나눌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동의하였다.

다음날 우리는 산체스의 집으로 가서 미리안에게 우리와 함께 로자의 집에 가자고 부탁하였다. 놀랍게도 그녀는 궁색한 핑계를 대면서 못가겠다고 말하였다. 우리는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무슨 일인지 알려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자 그녀는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로자는 미리안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살던 이웃 마을에 살고 있다고 미리안은 말하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곳 사람들은 미리안의 어머니에 대하여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고, 어머니를 위해 변호를 하려고 했으며 내가 생각했던 바는 옳았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 몇몇이 나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날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내 얼굴을 집중적으로 때렸지요. 그래서 이가 모두 없어졌어요.” 그녀는 입을 가리키면서 말하였다.

그 일을 우리에게 말한 후, 그녀는 즐거분하게 느끼는 것 같았으며, 우리가 진정으로 원한다면 함께 가겠다고 말하

었다. 우리는 그녀의 용기에 감명을 받았으며 그녀가 가야 한다고 했다.

토론 공부를 할 날 저녁이 되자 나는 동반자와 함께 산체스의 집으로 향하는 좁은 길을 따라갔다. 산체스 자매가 문간에 서서 반대 의사를 표하였다. “내 딸이 다시 그 끔찍한 곳으로 가는 것을 나는 원치 않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였지만 미리안은 알고 있었다. 우리는 그녀가 어머니에게 자기는 우리와 함께 가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다. 산체스 자매는 마지 못하여 허락하였다. 그러나 그곳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즉시 되돌아와야 한다는 굳은 약속을 받았다.

불행하게도 로자의 가족은 교회에 대하여 듣는 것에 흥미가 없는 것이 분명하였다. 우리가 발길을 돌리자 미리안은 우리에게 다른 가족들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하였다. 거기에는 한때 그녀와 데이트를 하다가 그가 나쁜 습관을 갖고 있는 몹시 세속적인 남자라는 것을 깨달은 후 데이트를 끝냈던 남자도 있었다. 영이 내게 임하였으며 나는 미리안에게 그 사람에게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녀는 매우 망설였으나 결국 루이즈가 그의 부모와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였다. 문을 열어 준 그는 우리를 보고는 저어 기 놀랐다. 그러나 우리를 안으로 들어 오게 하고, 우리가 들려주는 메시지에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복음 토론을 마친 후, 그는 우리에게 자기가 최근에 참된 하나님의 교회에 가입하고 싶었으나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도 몰랐다고 말하였다.

미리안은 이웃 사람들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고 신체적으로 그녀에게 일생 동안의 상처를 남겨 준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도왔다.

그는 이미 회개의 준비 단계를 밟았으나 무엇인가 더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이었다. 그는 우리에게 그의 마음은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참된 교회의 대표임을 알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다음 주에 침례를 받았다.

미리안의 지속적인 도움과 루이즈의 협조로 우리는 여섯 주일 동안 그 마을에서 25명에게 침례를 주었다. 나는 항상 과거에 미리안에게 심하게 대하였던 사람들과 이야기하기로 결심했던 때를 기억한다. 미리안은 그들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들 가족을 가르치는 일을 도왔으며 그중 여럿이 복음을 듣고 개종되었다.

그녀의 주님을 믿는 깊은 신앙과 주께서 그녀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능력에 대한 신앙 때문에, 미리안은 이웃 사람들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고, 신체적으로 그녀에게 일생 동안의 상처를 남겨 준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도왔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고 그들을 용서한 그녀의 이름을 존중하고 있다. *

편집자 주 : 미리안은 이 일이 있은 후 얼마 안되어서 맹장염으로 사망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생을 다하기 전에 위대한 회원 선교사의 사명을 다하였고 다른 사람들에게 훌륭한 모범을 보인 것이다.

버스에서



버스에서

올비드 즐링거

몸과 마음이 나른해지고 생각과 의식은 몽롱해져서 일이나 공부에 대한 생각을 떨치지 못할 정도로 더운 여름 오후였다. 내가 선교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이런 날은 생각을 일에 집중시키기가 매우 어려웠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정오가 되기 전부터 나는 학교 캠퍼스 동쪽의 산 어귀에서

뿌리 표본을 채집하고 있었다. 나는 실험실 파트너와 함께 생물 연구를 위하여 그것들을 채집하고 있는 중이었다. 우리는 식물을 채집하면서 나비를 쫓아다니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하였기 때문에 채집 시간의 거의 두 배나 되는 시간을 보냈다. 마침내 채집을 끝마친 후 나의 실험실 파트너가 그의 자동차로 나를 문명 사회에까지 데려다 주었고, 거기에서 나는 집으로 가기 위하여 버스를 탔다. 그날은 금요일 오후였으며, 나는 아직도 초여름의 조용하고 부드러운 분위기에 잠겨, 차를 타고 달리면서, 토요일은 태양이 있는 해변에 나가 시원한 물과 벗하겠다고 결심하였다.

에어 브레이크의 귀에 익은 제동 소리가 들리고 버스 앞에서 조그마한 소년이 올라타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다음날의 계획을 좀더 자세하게 구상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버스는 절반 정도 차 있었다. 내가 앉은 좌석과 버스 앞과의 사이에는 빈 자리가 여러 곳 있었기 때문에 나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다. 다시 창문 밖을 바라보면서 나는 상상의 주말 여행을 즐기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내가 다시 백일몽에 잠기려 할 때, 나는 그 소년이 다시 시야에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였다. 소년은 두 개의 빈 좌석을 지나서 곧바로 내 옆으로 오는 것 같았다. 아홉이나 열 살 정도의 소년으로 보이는 그는 색은 많이 바랬으나 깨끗한 진 바지와 붉은 색 체크 무늬의 셔츠를 입고 있었다. 셔츠가 좀 커 보이는 것을 보니, 분명히 형에게서 물려 입은 것 같았다. 소년이 다가오자 나는 소년이 내 옆자리를 비껴

다른 빈 자리에 앉기를 바라면서 창밖으로 눈을 돌렸다. 그러나 소년은 그러지 않았다.

“아저씨,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면서 소년은 내 옆에 앉았다. 소년은 자기 얼굴보다 더 크게 입을 벌여 웃어 보였다. 나는 웃고 싶지 않았지만 소년의 미소는 상당히 호소력을 갖고 있어서 미소로 답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안녕.” 나는 다시 얼굴을 굳히면서 대답하였다.

“날씨가 좋지요?” 소년이 말했다.

“그래.” 내가 대답했다. 이번에는 웃지 않았다. 나는 대화가 여기에서 그치지기를 바라면서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옮겼다. 어린 아이와 날씨가 대해서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내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공상을 즐기기엔 알맞은 날이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는 다시 편안히 앉아 해변에서 배구를 하며 즐기는 장면을 상상하기 시작하였다.

“아저씨, 결혼하셨어요?”

“뭐라구?” 나는 소년에게 얼굴을 돌리면서 물었다. 소년의 미소는 전번 미소보다 더 큰 것 같았다.

“결혼하셨어요?”

“아냐.” 나는 소년이 내가 그와 말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면서 냉담하게 대답했다.

“그러세요.” 소년은 실망한 듯 아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소년의 미소도 사라졌다. 내가 잠시나마 소년을 놀라게 했던 것 같았다. 소년은 잠시 생각하는 것 같더니 다시 나를 쳐다보았다. 눈이 더 반짝이는 것 같았다. “하지만 결혼하실거지요?”

나는 미소를 짓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그의 눈과 고른 이가 나의 결심을

무너뜨렸다. “결혼하게 되겠지.” 나는 미소를 보내며 말했다.

“아저씨가 결혼하시면 아내를 사랑하실거지요?”

이번엔 소년이 나를 놀라게 하였다. 이것은 어린 소년에게 어울리지 않는 질문인 것 같았다. 나는 소년이 무언가의 의도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물론, 사랑할테지.”

“그런데,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언제나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으시겠지요? 죽은 후에도 말이예요.”

불현듯 나는 소년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깨달았다. 소년은 지금 나에게 가장 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 소년은 물론인 것이었다. 나는 소년을 바라보았다. 나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할 말을 잊었던 것이다. 거의 이와 똑같은 질문을 나는 몇 차례나 반복했었나? 내가 브라질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을 때 버스에서나 길가에서 얼마나 많이 이 질문을 했었던가? 그러나 그것은 선교사 시절이었다.

지금은 아니다. 똑같은 말이 이곳 고향에서 10살짜리 소년에 의해서 내게 되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버스도 곧 속력을 늦추었다. 소년은 일어서면서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내게 주었다.

“아저씨, 저는 여기에서 내려야 해요. 이것 받으세요. 제 친구들 두 명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더 알고 싶으시면 그들에게 전화해 주세요. 안녕히 가세요.” 하고는 소년은 내려 버렸다.

나는 소년이 내게 준 소책자를 바라

보았다. 반으로 접혀져 귀퉁이가 약간 해져 있었다. 나는 소책자를 펴서 제목을 읽었다. “구원의 계획”이었다.

선교 지역으로부터 귀환한 지 거의 이 년이 되었다. 나는 나의 선교사 일지, 칼라 슬라이드, 기념품 그리고 술한 추억들을 고향에 갖고 왔다. 그러나 나의 선교 사업은 그곳에 남겨 두고 온 것이었다.

내가 고향에 온 후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는가? 가장 귀한 질문은 얼마나 했는가? 내가 주제를 끌어 내기만 했다면 흥미를 가졌을 비회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나는 선교사로 있는 동안에도 배우지 못하였던 선교 사업에 관한 것을 배우게 된 것이었다. 그것은 어린 소년이 간증과 미소만으로 내게 가르쳐 준 것이었다.

이제 버스는 사람들로 꽉 찼다. 버스는 거의 마을 중앙까지 왔고 시간은 5시가 되었다. 서류 가방을 든 젊은 신사가 내 옆에 앉았다. 나는 황황히 소책자를 셔츠 주머니에 넣고는 발밑으로 시선을 떨구었다. 나는 그 어린 소년에 대하여 생각하였다. 어린 소년이지만 그는 나보다 더 훌륭한 선교사였던 것이다. 나는 위를 쳐다보았다. 내 옆에 앉아 있는 신사는 창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마도 백일몽에 젖어 있을 것이었다.

“날씨가 좋지요?” 아무 생각없이 내가 말했다.

“네.” 그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아주 아름다운 날입니다.”

나는 주머니에 있는 소책자를 만지작거리면서 잠시 있다가 크게 미소를 지으면서 “결혼하셨습니까?”라고 물었다. *

여명

로렌 시 던 장로

나는 달리기를 좋아합니다. 최근 뉴질랜드에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 매일 아침 나는 오클랜드 안니가의 우리집에서부터 르므에라까지, 어떤 때는 월 트리 언덕까지 달립니다. 뉴질랜드에서 이른 아침에 달리기를 하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에 놀랄 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장관인 일출 광경을 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날 아침은 태양의 첫 빛을 받아 굽이치는 구름으로 하늘이 불붙는 듯한 색조를 띄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색이 온화하고 잔잔하게 느껴지는 날도 있습니다. 색조가 거의 없고 비가 내리는 아침도 있습니다. 일출이 어떤 모습으로 발전될 것인가를 예측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멋진 새벽이 될 것 같던 날이 갑자기 구름으로 덮여 어둠과 비만 내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바로 적시에 태양이 뿔고 나와 아름다운 일출을 보여 주기도 합니다. 하루하루가 다 다릅니다. 새벽은 항상 그날그날의 신비와 놀라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하루하루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을 오는 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매일매일을 가득히 드리워진 우물을 밝음과 빛으로 기적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내적인 빛과 좋은 날들을 감사로 맞이하고 역경의 날들은 신앙과 결단력으로 맞아 안정의 “새로운 아침”을 맞

이할 수 있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시련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전혀 주실 것이요. 마지막 날에 높이 들어 올리시리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음이라.”(엘마서 36:3)

여러 해 전, 우리가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살고 있을 때, 나는 일주일을 고생스럽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을 고생스럽게 보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짐작하시겠습니까? 이때 동안 계속 어려움이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 주간이 끝날 무렵 나는 낙담에 빠졌고 어느 정도 나 자신에게조차 실망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나는 가족이 모두 잠자리에 든 후, 보통 날 아침 저녁에 하던 기도보다 더 큰 결단력을 갖고 주님 앞으로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두운 집의 아래층 서재에서 무릎을 꿇으니, 모든 상황은 내가 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쉽게 해주었습니다. 나는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기도를 드릴 때 나는 주님께서 그곳에 계시고 그가 들보신다는 확신을 얻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과거의 경험에서 나는 이것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재확인의 힘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드리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였을 때 나는 아주 놀라운 경험을 맛보았습니다. 전에도 영적인 경험을 맛보았던 때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그 어느 것보다 더 큰 것이었습니다. 영의 임하심이 너무도 실제적이어서 나는 그것을 가깝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온 영혼을 채웠으며, 단 한 번의 경험에 그치지 않고 일이 분 사이

에 여러 차례 거듭되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영으로 거듭나서, 구세주께서 살아 계실 뿐만 아니라 그가 나를 아시고, 진실로 거룩한 사랑으로 나를 돌보신다는 강한 확신을 얻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 경험의 영향력은 여러 날 나를 감쌌고, 나로 하여금 이웃과 내가 알지 못하는 거리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진실로 사랑하고, 관심을 갖게 하는 마음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들을 지나쳐 버렸겠지만, 이제는 그들에 대해 염려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의 가족도 이제는 더 소중히 느껴졌습니다. 나는 어느 곳에서든지 성도들과의 유대를 맺었으며, 나의 이웃을 돕고 싶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가 당면하고 있던 역경을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역경은 으레 그렇듯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영이 나를 고쳐 주었던 그날 저녁의 경험은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 경험은 나

에게 우리의 마음이 올바르면 우리는 주 앞으로 갈 수 있으며, 어떠한 방법이나 어떠한 정도로든지 주님은 상한 심령을 위로받게 하는 영의 은사를 주신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영은 고침을 줄 뿐만 아니라 융화시키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 한번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매일매일의 새날이 시작될 때, 우리가 진실한 기도를 드리고 계명을 지키므로써 우리 자신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성신의 빛이 우리 안에서 비치고 우리를 지지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변할 수 있고 변해야 하는 것을 변화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변경할 수 없는 경험을 겪을 때 요동하지 않게 도와 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시편 84 : 11) *



우산을 만든 사람

프란세스 알트만

페르샤의 시장은 화려한 색동 벨트가 쳐진 거대한 서커스단과 같았다. 장터의 소리도 서커스에서 들리는 소리와 비슷하다.

조나스 한웨이는 모직을 사서 자기 배로 영국으로 가져 가기 위해 페르샤에 왔다. 모직 장사와 흥정하려 할 때 왕자의 행렬 때문에 모든 것이 중단되었다.

“왕자님 행차시다. 길을 비켜라.” 신하가 외쳤다.

왕자가 지나자 사람들은 그들의 관습대로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절을 하였다. 그러나 조나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구경하고 싶었던 것이었다. 힘센 네 사람이 왕자가 탄 벨벳으로 드리워진 사인교를 들고 있었다. 그들은 사인교를 사람들의 머리 높이 만큼 높혀 그들의 어깨 위에 메고 가고 있었다. 그리고 왕자의 머리 쪽으로 다른 신하가 이상하게 생긴 해 가리개를 들고 있었다.

조나스는 “그것 참 멋진 생각이구나!” 라고 속으로 외쳤다. 그는 곧 왕자의 해 가리개가 양산이라고 불려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조나스는 페르샤의 모든 국민이 자신의 양산을 갖고 있다면 얼마나 편리할까 하고 생각하였다.

곧 조나스는 사람들이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양산을 몇 개 만들게 하였다. 그러나 왕자가 이 소식을 듣고 조나스를 왕궁으로 오도록 명하였다.

그리고 왕자는 “양산 만드는 것을 금하라. 페르샤에서는 왕자와 임금만이 양산을 쓸 수 있노라. 이는 왕궁의 표적이니라.”라고 명령하였다.

왕자는 조나스에게 몹시 화가 나서 손짓을 하며 더 큰소리로 외쳤다. “페르샤에서는 이제까지 그래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니라. 당장 양산들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조나스는 영국의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 양산을 모두 그의 다락방에 넣어 두었다. 그는 바쁘게 지내느라 왕자에 대한 것을 잊게 되었다.

어느 날 조나스가 외출했을 때 비가

오기 시작하였다. 잠깐 사이에 두껍이 달린 가마 의자와 포장 마차는 모두 만원이 되고 말았다. 조나스는 그의 집 현관에서 비를 맞으며 혼자 서 있게 되었다.

그 당시는 세단이라고 불리워지는 덮개가 있는 가마 의자를 타는 것이 여행의 좋은 수단이었다. 두 개의 긴 장대 사이에 얹혀진 의자를 두 사람이나 네 사람이 메고 다니는 것이다. 비가 오면 모든 사람이 이 세단 가마 의자를 타고 비를 피했다.

이 가마 의자를 타는 사람들을 보니, 페르샤 왕자의 생각이 났다.

양산이 페르샤 왕자에게 햇빛을 가려 줄 수 있다면, 나에게 비를 가려 줄 수도 있을거야. 라고 그는 생각했다.

조나스는 그의 다락방으로 뛰어 올라가 양산을 찾았다. 그것을 머리 위로 치켜 들고 그는 거리를 걸었다.

“저 미친 사람 좀 봐.” 그가 지나자 어린이들이 소리쳤다. 그때까지 그러한 우산을 쓴 사람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조나스는 비가 올 때마다 그의 우산을 갖고 다녔다. 그는 우산을 친구들에게도 주어서 갖고 다니게 하였다.

가마 의자를 메고 다니는 사람들은 몹시 화가 났다. 그들은 조나스에게 덤벼 들고 돌을 던지기도 하였지만 일반 사람들은 조나스 한웨이의 이상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쁘게 받아들였다. 얼마 안가서 영국 사람들은 우산을 갖고 다니게 되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세계 여러 곳으로 퍼져 우산은 비가 올 때 사람들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된 것이다. *

지하실



아이리스 신더가드



버드나무 덩불 속의 소꿉놀이 집에서 한나는 엄마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한나, 어디 있니? 어서 나오너라.”

한나는 인형을 비밀 장소에 감추어 놓고는 집으로 들어갔다.

“빨리 와서 착하구나, 한나야.” 엄마가 웃으면서 말씀하셨다. “엄마는 한손 자매님덕으로 빨리 가야 해. 엄마가 돌아와서 곧 저녁을 시작할 수 있게 네가 지하실에 가서 감자 쪼 가져 오겠니?”

“아유, 엄마!” 한나의 몸에는 소름이 끼쳤다. “지하실에는 거미 투성이예요. 게다가 오늘 두꺼비가 튀어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요. 난 지하실에 가기 싫어요.”

“사람이란 때때로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한단다. 새미를 데리고 가려므나.” 어머니는 새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말씀하셨다.

“내가 같이 갈께.” 새미는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그리고는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난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

그러나 어머니가 긴 치마자락을 끌면서 꽃으로 장식한 모자를 쓰고 골목을 내려가자 새미는 “나도 그 지하실이 싫어.”라고 말하였다.

“너 따라 오지 않으면 엄마한테 이를테야.” 한나가 말했다.

동생은 바지 주머니에 손을 찌르고 버티고 서서 조금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한나는 잠시 새미를 노려보다가, 용감하게 보이려고, 집 위의 땅 높이에 있는 약간 경사진 널빤 문쪽으로 힘차게 걸어갔다. 한나는 문을 들어 열어 보고는 재빨리 문을 닫았다. 젖은 땅에

나 있는 고르지 못한 계단을 보는 것만으로도 한나는 소름이 끼쳤다.

거미와 어둡침침한 빛은 기분을 망치기에 충분했다. 더구나 한나는 어제 아빠가 한손씨에게 하는 말썹을 들었었다. “물 대는 도랑 공사를 빨리 끝내고 나서 시간을 내어 지하실을 손봐야겠어요. 흙 지붕을 떠받치도록 임시로 만든 버팀목이 이제는 견디지 못할 것 같더군요.”

아빠가 하신 말을 엄마에게 말씀드렸더라면 나와 새미를 지하실에 가라고 하지 않으셨을 텐데 라고 한나는 생각했다. 한나는 몸을 돌려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때 한나는 아기가 죽은 후, 엄마가 몹시 약하고 슬퍼 보인 것과 아빠가 매우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고 하신 것을 기억하였다. 한나는 자기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새미가 원하던 원하지 않은 같이 가야겠다고 작정하였다.

한나는 새미를 돌아다보았다. 새미는 누나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 “네가 먼저 들어가.” 한나가 명령하였다.

“싫어!” 새미가 완강하게 거절하였다.

“넌 겁쟁이구나!”

“아니야! 바보같은 늙은 두꺼비랑 거미가 뭐가 무섭단 말야!” 이렇게 말하면서 새미는 몸을 구부리고는 지하실 문을 열어 젖혔다. 문이 다시 탕 닫히려는 것을 한나가 간신히 막았다.

한나는 문이 닫히지 않도록 문을 떠받치며 동생을 따라 뒷걸음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때 새미의 놀리는 소리가 작은 굴에서 울려 나왔다. “누나는 겁쟁이!”

화가 난 한나는 뒤로 몸을 휙 돌리다

가 그만 반치고 있던 문을 놓쳤다. 문이 쿵 닫히면서 한나는 계단에 주저앉고 말았다. 한나는 무서워하면서 어둠 속에서 무릎으로 일어섰다. 바로 곁에 두꺼비와 거미가 있다 해도 볼 수조차 없게 된 것이었다.

“누나, 무슨 일이야?” 새미가 외쳤다. 그러나 한나의 머리와 어깨에 떨어지는 축축한 흙의 무게에 놀라서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지붕이 주저 앉았구나! 한나는 생각하였다. 문이 탕 닫힐 때 아버지가 버팀대로 사용하셨던 널빤지를 쓰러뜨렸음이 틀림없다.

근처에서 동생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누나, 도와줘! 온통 흙을 뒤집어 썼어!”

“곧 갈게, 새미.” 한나는 문을 찾아 밀쳐 열려고 어두움 속을 더듬거리면서 대답하였다. 그러나 만져지는 것은 오직 진흙뿐이었다. 출구가 완전히 막힌 것이다. 한나와 새미는 지하실에 갇히게 되었다.

그들을 싸고 있는 암흑은 한나가 전에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다. 흙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축축한 이 어두움은 은회색의 별빛이 비치는 푸른 어두움과는 다른 것이었다.

새미는 큰소리로 울고 있었다. “나도 무섭지만, 난 울지 말아야 해. 공기가 모자라서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하는데.” 라고 한나는 생각했다. 한나는 손을 내밀어 동생을 더듬었다. 손끝이 동생의 어깨에 닿자 한나는 간신히 가까이 다가 앉아 동생을 끌어안았다.

“울지 마, 새미. 이 안에 있는 공기를 모두 마셔 버리면 안되니까 숨을 조심해서 쉬어야 해.”라고 한나는 위로하

였다.

새미가 침을 삼키며 말했다. “누나, 어떻게 해?”

“우리 기도하자.” 한나는 이렇게 말하더니 눈을 감고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하나님 아버지, 제발 저와 새미를 도와 주세요. 저희들은 지하실에 갇혔는데 집에는 아무도 없어요. 제발 저희를 밖으로 나가게 해주세요.”

말을 하니까 목구멍이 아파서 “아멘”이라는 말은 목구멍 속으로 기어 들어갔다. 지하실 안의 공기가 거의 없어진 것이다.

한나는 새미와 함께 웅크리고 앉아, 주변을 더듬거리면서도 이제는 거미나 두꺼비가 조금도 무섭게 느껴지지 않았다. 한나의 손가락 끝에 어떤 단단한 물체가 잡혔다. 한나가 물체의 표면을 만져 보아 아빠가 지붕을 버티기 위하여 사용하셨던 널빤지임을 알 수 있었다.

“나 줌 도와 줘, 새미.” 한나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이것으로 우리 머리 위에 구멍을 내야겠어.”

동생의 손과 누나의 손이 마주쳤다. 그들은 함께 널빤지를 잡고는 위로 밀

“우리 기도하자.”

었다. 마침내 한나는 널빤지가 단단한 흙을 뚫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좋아, 새미, 밀자. 하지만 조심해. 무너지면 안되니까.”

조용히 숨을 헐떡이면서 그들은 조심스럽게 보이지 않는 지붕을 머리 위로 자꾸만 올렸다.

새미가 막 “난 이제 지쳤어.”라고 말할 때, 널빤지가 쉽게 올라갔다. 마침내 땅을 뚫은 것이다!

새미는 팔을 떨구었다. 그러나 한나는 떨리는 손으로 널빤지를 앞뒤로 계속 흔들어 파란 빛이 조그맣게 새어 들어오게 했다. 이제 공기는 통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할까? 여전히 한나는 가슴이 답답함을 느꼈고 새미는 다시 흐느끼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는 약하게 들려왔다.

한나는 숨을 죽이고 널빤지를 가만히 붙들고 있었다. “무슨 소리지?” 한나가 속삭였다.

규칙적으로 쿵쿵거리는 소리가 주위의 흙을 진동시켰다. “밖에 누가 있구나. 하지만 엄마가 한순간 맥에서 벌써 오셨을 리는 없는데.” 한나는 생각하였다.

갑자기 좀더 많은 빛과 공기가 들어오면서 남자의 음성이 들렸다. “안에 누구 있습니까?”

“네! 우리 여기 있어요.”

“너희들 괜찮니?”

한나는 대답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 남자는 말하였다. “가만히 거기 있거라. 내가 곧 너희들을 꺼내 줄게.”

두 손이 나타나자 한나는 먼저 새미를 출구쪽으로 밀어 나가게 해주었다. 그런 다음 한나는 손목을 붙잡는 강한 손가락을 느꼈고 젖은 땅에 만들어진 조그마한 출구로 끌어올려졌다.

한나가 맑은 공기와 환한 빛에 눈을 깜박거리자 턱수염이 많이 난 카드 형제님이 미소를 지으며 내려다보셨다.

한나는 새미 곁에 비틀거리며 주저앉았다. 그때 말발굽 소리가 났다.

아빠는 말에서 뛰어내려 새미와 한나에게 달려와서 그들을 껴안았다. “너희들 괜찮니?” 아빠는 걱정스레 물으셨다.

“괜찮아요, 아빠. 하지만 거의 질식할 뻔했어요. 지하실 지붕이 주저앉았어요.” 한나가 대답했다.

“모두 내 잘못이다. 미리 지붕을 고쳤어야 하는건데.” 아빠가 이마를 문지르시며 말씀하셨다.

그러자 카드 형제님은 “조셉,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말아요. 이 마을 주민들은 모두가 할 일이 워낙 많아 시간이 나지 않으니까요.”라고 위로하셨다.

“누나 때문에 살았어요, 아빠. 우리는 널빤지로 지붕에 구멍을 뚫었어요.” 새미가 말했다.

“내가 여기를 지날 때 그걸 보았지. 참 이상한 일이지.” 카드 형제님이 설명하셨다. “우리가 이웃하고 사는 이년 동안 내가 한번도 형제님의 땅을 가로질러 가 본 적이 없었지 않소, 조셉? 오늘 오후만 해도 이리 질러갈 생각이 없었지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내 발길이 이리로 향했지 뭐예요. 제일 처음에 땅 위에서 널빤지가 나와 무슨 표시처럼 흔들리는 것을 보았지요. 나는 주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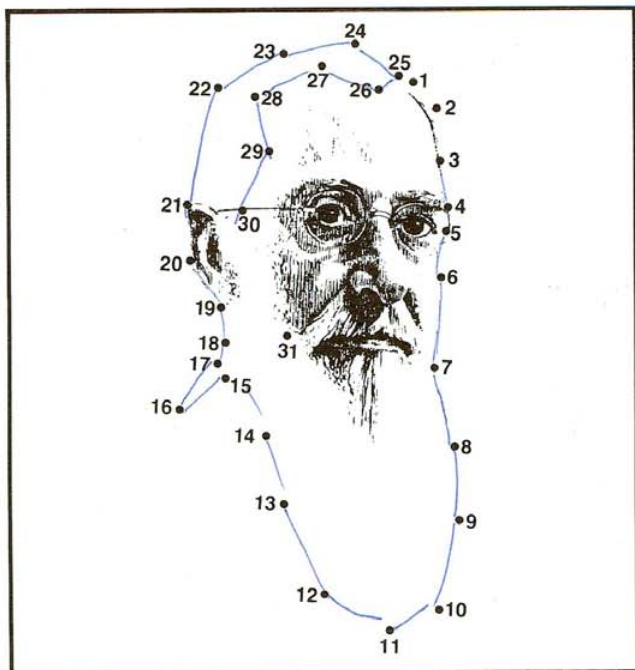
새미와 한나는 서로 마주 쳐다보며 웃었다. “카드 형제님,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아요.” 한나는 조용하게 말하였다. *



그
아
프
의
하
위

스
미
스

조
셉
에
프
스
미
스



1838-1918

조셉 에프 스미스가 태어난 직후, 일단은 사람들이 스미스의 집으로 쳐들어 왔습니다. 그의 어머니 매리는 그 당시 병석에 누워 있었고 아버지 하이람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집을 살살이 뒤흔들면서 아기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있는지 모르고 아기 위에 담요와 흙이불을 던졌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그 속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놀랐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집을 떠나자 가족들은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잠시 후 매리는 조셉을 생각하고 누이 머시와 함께 아기 있는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 방에 들어간 그들은 아기가 숨이 막혀 죽었을까봐 두려워하였습니다. 다

행히 아기를 살리기 위한 그들의 필사적인 노력은 성공하였습니다.

비극은 조셉 에프가 유년 시절을 지낼 때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가 6세가 되기 전에 그의 아버지 하이람과 예언자 요셉은 카테지 감옥에서 순교당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조셉은 어머니를 도와 서부로 이주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아직 10살도 안된 그는 윈터 쿼터즈를 떠나 1848년 여름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할 때까지, 1,600킬로미터가 넘는 먼 거리를 포장 마차와 네마리의 황소를 끌고 여행했습니다. 어머니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계곡에 제일 먼저 도착하겠다고 결심하신 이후로 여행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조셉은 14살 때 어머니마저 잃었습니

다. 여러 해 후에 그는 다음과 같이 말 하였습니다. “내 생애에서 모든 원리를 지키도록 나를 인도했던 가장 강한 닻은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조셉 에프가 열 다섯 살 때 그는 대부분의 어른들만큼이나 많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는 하와이, 미국, 영국 등지에서 선교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유럽 선교 부장으로 부름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이십 칠세 때에 사도로 성임되었습니다.

1901년에 그는 최초로 말일성도 부모에게서 태어난 교회 대관장이 되었습니다. 홀랜드 출신의 어느 어린 소년인 존 루오토프는 시력을 잃어 가고 있었는데

데 스미스 대관장님이 그의 마을을 방문하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언자는 이 지상에서 모든 사명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시지요. 저를 모임에 데리고 가서서 그분께 제 눈을 보인다면, 제 눈이 곧 나을거라고 생각해요.”

모임이 끝난 후 스미스 대관장은 존의 붕대를 풀고 그의 눈을 보시고 축복 하시면서 그가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후 집에 와서 붕대를 끄르자 소년은 “엄마, 제 눈이 다 나왔어요! 조금도 아프지 않아요. 이제는 잘 보여요. 먼 데 있는 것까지 다 보여요.”라고 외쳤습니다. *

물문경 짝짓기

후스 크리스티슨

물문경의 인물과 알맞은 설명문을 짝지으시오.

1. 엘마
2. 리하이
3. 노아
4. 레뮤엘
5. 힐라맨
6. 사무엘
7. 레이밴
8. 베냐민
9. 레이맨
10. 모로나이
11. 라모나이
12. 새라이아
13. 물몬
14. 야렛
15. 아빈아다이

- ㄱ. 의로운 왕
- ㄴ. 악을 행하는 자
- ㄷ. 전쟁터에서 2,000명을 인도함
- ㄹ. 지상의 마지막 니파이인
- ㅁ. 야렛인의 지도자
- ㅂ. 니파이인과 레이맨인의 조상
- ㅅ. 늦취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
- ㅇ. 니파이인 예언자
- ㅈ. 레이맨인 왕
- ㅊ. 위대한 선교사
- ㅋ. 레이맨인의 지도자
- ㅌ. 물문경의 기록을 요약함
- ㅍ. 리하이의 모반적인 아들
- ㅎ. 니파이와 레이맨의 어머니
- ㅊ. 레이맨인 예언자

어나러는 간절한 소망과 겸손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상한 심령이 회개의 과정입니
다. 회개는 주님 앞에서 겸손히 한 자에
게 주어지는 은사와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회개, 즉 죄 사유함
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번째 단계는 죄의 고백입니다. 죄의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 자기 죄
를 회개하는지 아니하는지는 이로써 알 수
있나니, 보라, 회개하는 자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그 죄를 버리리라.”(교성 58:43)
이와 같이 주님께서서는 자기 죄를 고백하
지 않는 자는 완전히 회개하는 것이 아니
라고 하셨습니다.

두번째 단계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기꺼이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
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
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
리라”(마 6:14~15) 우리가 주님 앞에 반
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죄를 범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고 경전
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단계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
에 대한 확신은 죄 사유함을 얻는 데 필
요한 조건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를 대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
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의 계명을 순
종함으로써 죄 사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회개의 과정에 필요합니다.

참된 회개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후회와 고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죄에 대해 하
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지면서 과

거의 과오를 보상하고, 앞으로 훌륭한 생
활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참으로 회개는
주님 앞에서 겸손히 한 자에게 주어지는
은사입니다. 회개의 은사는 겸손한 자의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음성에 귀를 기울
이지 않으면 영은 곧 우리 곁을 떠납니다.
우리가 겸손히 상한 심령을 가질 때 하
나님에 대한 신앙이 발전하며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회개의 은사를 받을 수 있
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미루면 미룰수록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은 약해집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몬경에서 앰올레크는 우리에게 경고하
시길 “보라 이 생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
을 준비하는 시간이요...너희의 회개를 마
지막까지 미루지 않기를 바라노라... 너희
가 긴박한 위기에 처하고 난 뒤에는 회개
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할 수 없
으리라. 참으로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없
으리니, 이 생에서 너희 육신을 다스린 그
영이 영원한 세상에서도 너희 몸을 다스
리리라, 보라, 너희가 죽기까지 회개를 미
루면 너희는 악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되어
악마가 너희를 저의 것으로 하며”(엘 34:
35)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잘못
을 미루지 않고 회개를 통해 늘 변화된 생
활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가까
이서 느낄 수 있고 우리의 영성은 더욱 향
상될 것입니다.

회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
사이며, 우리의 부족함을 이 은사를 통해
채울 수 있습니다. 부족함을 극복하는 가
운데 참다운 기쁨과 성취감을 맛볼 수 있
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
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해롤드 비 리 대관장의 미망인 프레더 리 자매 자택에서 별세



교회의 제11대 대관장이었던 해롤드 비 리 대관장의 미망인인 프레더 존 쟈슨 리 자매가 84회 생일을 하루 앞두고 7월 1일 자택에서 별세하였다.

리 자매는 1897년 7월 2일에 덴마크 신장인 줄리어스 쟈슨과 크리스틴 허미나 투에슨 쟈슨의 딸로 태어났다.

그녀는 유타주에서 교사로서 또한 여러 교육 기구의 행정가와 사무관으로서 명성을 쌓았다. 리 자매는 자녀를 낳지 못하였으나 어린이를 극진히 사랑하였으며, 실제로 일생을 거의 어린이를 위하여 봉사하는데 바쳤다.

그녀는 리 대관장이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으로 있던 1963년 6월 17일에 리 대관장과 결혼하였다. 리 장로는 1972년 7월 7일에 교회 대관장이 되었으며, 1973년 12월 26일에 별세했다. 그의 첫번째 아내인 편 태너 리 자매는 1962년에 별세하였다.

리 자매는 1963~1974년까지 본부 초등 협회 임원으로, 1936~1948년까지 본부 음악 위원 및 본부 청년 상향회 임원으로 봉사하였다. 그 전에는 조던 스테이크와 조던 서 스테이크의 주일학교 임원으로 봉사하였다. *

말일성도가 임명됨 핀란드 대사로

귀환 선교사로서 51세의 교회 회원인 키이스 폴 뉴보 형제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 의하여 핀란드 주재 미국 대사로 임명되었다.

애쉬튼 아이다호 스테이크의 애쉬튼 제 4 와드 회원인 뉴보 형제는 1950년부터 52년까지 2년 동안 핀란드에서 선교사로 봉사하였으며, 그때부터 6, 7차례 그곳을 방문하였다. 그는 1953년에 핀란드의 탐페레 출신인 라이자 리이나 이트코넨과 결혼하였다. *

밀란시에 이탈리아 최초의 말일성도 스테이크가 조직됨

지난 6월 7일 밀란시에 이탈리아 최초의 스테이크가 조직되었다. 이 도시는 이탈리아의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인구 180만명의 도시로 오페라 하우스로 유명하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이 스테이크를 조직하기 위해 리릭 극장에서 개최된 대회를 감리했다. 벤슨 장로는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으로서 유럽 서부 지역 집행 관리자이며 최근 주일학교 회장단 제 2보좌로 부름받은 제임즈 엠 패러모어 장로, 지역대표인 레오 폴도 라처 형제, 그리고 이탈리아 밀란 선교의 사무엘 보렌 선교부장의 도움을 받았다.

마리오 바이라 형제(57세)가 스테이크 부장으로, 기우세페 파스타 형제와 로렌조 보타 형제가 각각 그의 보좌로 부름을 받았다. *

브리감 영 대학 법대 학장 미연방 검찰총장으로 임명됨

김 효명 형제 미주 지역 본인방 타이틀 획득

10년 전에 문을 연, 브리감 영 대학 제이 루벤 클라크 법과 대학의 렉스 이 리 학장은 최근에 미국 상원의 인준을 받아 미연방 신임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었다. 리 형제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 의하여 이 직책에 임명되었다.

리 형제는 1975년부터 1977년까지, 제럴드 알 포드 대통령 행정부에서 법무 차관으로 일한 바 있다.

상원의 인준을 받기 전에도, 리 형제는 미주 최고 재판소에서 미연방 검사로 훌륭하게 일했다.

미연방 검찰총장으로서, 그는 매년 정부가 개입되는 60 내지 70건의 고등 법원 소송을 다루는 20명의 검사들을 관리하게 된다.

리 형제는 많은 교회 부름을 받고 일했으며, 지명 당시에는 비 와이 유 제 7 스테이크 부장으로 봉사했으며, 7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현재 LA 한국 지부 회원인 김 효명 형제가 5월 31일, 나성 지역 일본계 나부 기원 주최 미주 지역 본인방전 바둑 대회에서 본인방 타이틀을 차지하였다. 김 형제는 결승 3번기에서 상대인 미즈나카 6단을 선 2승으로 가볍게 누르고 한국인의 바둑 실력을 과시하였다. 이번 대회는 5월 17일 하오 1시부터 나부 기원에서 열려, 첫주에는 초단부터 4단까지 예선전을 벌였고, 2주간에 걸쳐 토너먼트 총호선(5호 반 공제)대국을 벌였다.

본선 토너먼트에서 일본인 미즈나카 6단과 같은 3승의 성적으로 결승전에 진출한 김 형제는 연이어 두 판을 불계승으로 이기고 1979년도 일본 기원 주최 "춘계 바둑 대회"에 이어 큰 바둑 대회에서 두 번이나 우승하는 영광을 차지하였다. 미주 지역 본인방전은 일본계 나부 기원이 주최하는 미주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아마추어 바둑 대회이기도하다. 본인방전은 일본 도꾸가와 막부 시대·일본 기원 4가 본인방을 기념해서 여는 일본 프로 바둑 최고 타이틀 중의 하나이다. 김 형제는 한국에 있을 때는 제 7 와드 회원이었으며, 3년 전에 이민간 성실한 회원이다. 김 형제는 영광의 기쁨을 나누면서 자신이 노총각이며, 신부감을 구하고 있다는 말을 거듭 이야기하였다.

*



사진설명 : 신임 미연방 검찰총장, 좌로부터 웬디, 스테파니, 마이클, 부인 제넷, 그리스디, 엘리사, 톰 및 다이애나.

서울 스테이크 소년 대회 개최

서울 스테이크는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3박 4일 동안 경기도 용문에서 '81년도 소년 대회를 가졌다.

이번 대회는 예년과 달리 장차 발족될 '교회 소년단'의 조직을 염두에 두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대회에 참가한 회원들은 야영에 필요한 장비를 준비하여 직접 취사를 하였고 스테이크 역원들로부터 많은 훈련을 받았으며 유익한 경험을 하였다.

이번 대회 장소는 앞에는 강물이 흐르고, 뒤에는 시원한 야수가 있는 야산이 있어 야영하기에는 안성맞춤인 장소였다.

대회 기간중에 최 옥환 스테이크 부장을 비롯하여 각 와드, 지부 감독과 지부장들이 방문하여 격려를 주었고, 회원들은 모두 건강하게 대회를 마칠 수 있었다.

폐회 전에 가진 간증회에서는 대회 동안 느낀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였으며, 강한 간증을 나누었다. 특히 농아 지부 회원들의 모범과 간증은 깊은 감명을 주었다.

이번 대회를 위하여 선발대가 많은 수고를 하였고, 대회를 지휘한 김 종열 부장과 야영 생활을 지도한 정 윤 고등평의 원에게 회원들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참석 인원 약 180명. *



소년 대회에 참여한 회원들.

서울 동 스테이크 소년 대회

7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3박 4일 동안 경기도 포천군에 있는 유암 국민학교에서 81년도 서울 동 스테이크 소년 대회를 가졌다. 주제를 "사랑과 봉사"로 정한 이번 대회 동안 스테이크 부장단을 비롯하여 많은 신권 지도자들이 대회 주제에 대하여 말씀하였다. 참가자들은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함" "나의 발전 기록부" 작성 요령과 개인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작성과 실천 계획 등 교회와 학교 생활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훈련을 쌓았다. 이번 대회는 아폴로 눈병으로 인해 하루를 단축하여 끝마쳤다. 스테이크 부장단은 대회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선발대와 고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참석자 180여 명. *



박 정욱 형제 박사 학위 받음

8월 28일 연세 대학교 1980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에서 서울 북 스테이크의 고등 평의원인 박 정욱 형제가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남 광산군이 고향인 박 형제는 1969년 1월 4일 침례를 받았으며, 1976년에는 제 9와드 감독으로 봉사한 바 있다. 박 형제는 한국 투자 신탁에서 전산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또한 박 형제는 연세대학교 대학원과 단국 대학교 대학원, 그리고 증권 연수원에서 강의를 맡고 있다. 부인인 이 양자 자매는 1967년 10월에 침례를 받고 회원이 되었으며, 현재 세무사이며, 서울 북 스테이크 제 9와드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자녀로는 2남을 두고 있다. *

신권 역원 친선 모임



9월 23일 오후 7시부터 시내 이태원에 위치한 크라운 호텔에서 서울 스테이크 역원 친선 모임을 가졌다. 이번 모임의 특별 손님으로 3년간 부산 선교부장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환한 이호남 교회 교육 기구 대표 부부와 수년간의 각고 끝에 박사 학위를 받은 서희철 잠실 와드 감독 부부, 그리고 최근까지 장로교 신학교 교수로 있다가 9월 5일 침례받은 최동설 형제 부부가 초대되었다.

이날 모임에서 한 인상 장로는 격려의 말씀을 해주었고, 이어서 최동설 형제 부부, 서희철 감독 부부, 그리고 끝으로 이호남 부장 부부의 말씀이 있었다. 이날 최동설 형제는 침례 받기전 3개월 동안 많은 고민을 하였다고 말하였고, 그의 부인은 남편을 따라 개종하게 되어 기쁘다고 이야기하였다. 서희철 감독은 박사 학위를 받은 기쁨을 신권 지도자들과 나누게 된 것을 주님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말하였고, 그의 부인은 내조하면서 겪은 어려움을 이야기 하다가 목이 메이기도 하였다. 이호남 부장 부부는 영적인 말씀과 훌륭한 간증을 전하였다. 이날 참석하신 서울 선교부의 클레멘트 선교부장 부부와 신권 지도자 부부들은 서로 정다운 인사를 나누었다. 모임을 마치면서 최욱환 스테이크 부장은 이러한 모임을 자주 마련하여 신권 지도자들은 물론 내조하는 부인들 상호간에 우정을 돈독히 할 것을 다짐했다. 참석자 54명. *

반포, 둔촌, 모진 지부 서울 스테이크로

8월 16일, 그 동안 서울 선교부 산하에 있던 반포, 둔촌, 모진 지부가 서울 스테이크 산하로 속하게 되었다. '80년 말, 전도소로 시작하여 발전한 이들 3개 지부는 1년도 채 못되어 스테이크 산하 지부로 되었다.

모진 지부장으로는 정연우 형제, 둔촌 지부장으로는 박승환 형제, 그리고 반포 지부장으로는 구원서 형제가 봉사하고 있다. *



서희철 감독 박사 학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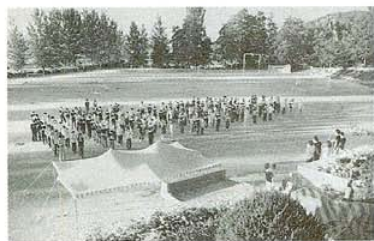
현재 한국 교회 교육 기구 서울 동신학 연구원장으로 수고하고 있는 서희철 감독은 지난 9월 19일 1980학년도 후기 단국대학교 대학원 학위 수여식에서 "한국 노사 관계 유형화를 위한 실증적 연구-사회 문화적 측면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 논문은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조정되는 노사 문제의 원인과 과정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한국적 상황에 맞는 유형화 작업을 시도하여 한국 노사 관계의 특성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하였다. 중학교 시절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서 감독은 선교부 상향회 회장, 지부장단, 고등 평의원, 스테이크 부장단 그리고 한국 교회 교육 기구 대표 등 교회의 여러 직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하였고 현재는 서울 스테이크 잠실 와드 감독으로 봉사하고 있다. 가족으로는 부인인 정경순 자매와 수정, 지예 그리고 리나, 세 딸을 두고 있다. *

서울 지역 합동 청년 대회

서울 지역의 서울 스테이크와 동 스테이크, 서 스테이크, 그리고 북 스테이크는 8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 동안 경기도 이천군 장호원에서 합동 청년 대회를 개최하였다.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 이번 대회에 참가한 청년들은 많은 신권 지도자들의 말씀을 들었고, 형제 자매들간의 친목과 우정을 돈독히 하였다. 대회 동안 유니폼을 착용하여 한결 단결되고 질서있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참가자들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긍지를 갖고 오랜 동안 만나지 못했던 다른 스테이크의 형제 자매들과 이야기 꽃을 피우기도 했다.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청년들은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많은 지식과 훈련을 쌓았으며, 현지 주민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었다. 이번 대회를 위하여 대회 준비 위원들은 많은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참가자 200여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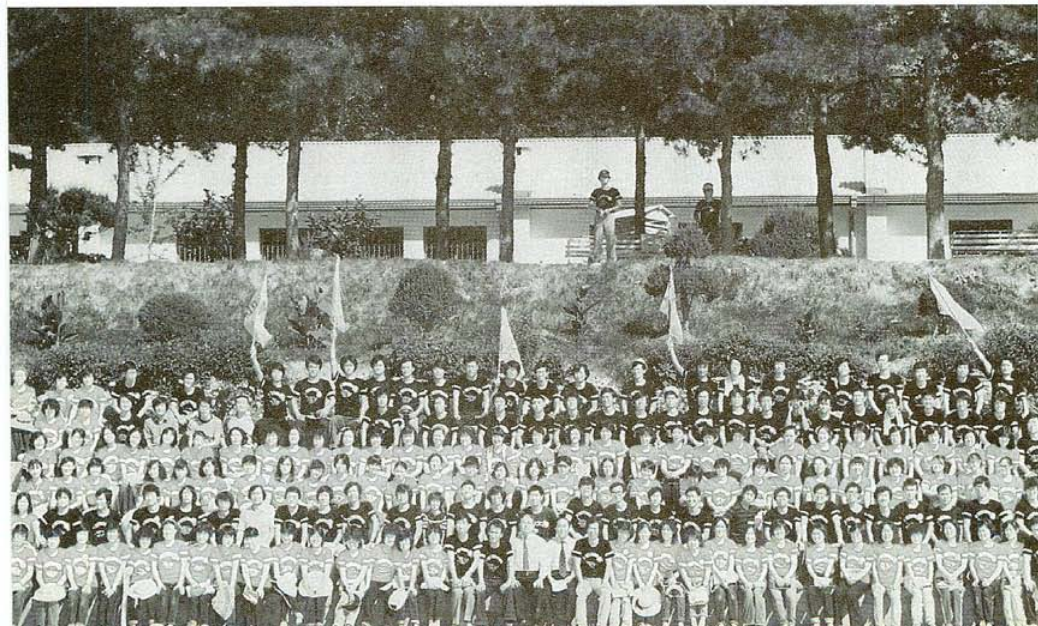
운동장에 배열한 회원들.



동그라니 모여서.



돌이오기 전날 우정을 나누며



신학 연구원 졸업식 및 입학식 거행 서울 동·서



서 신학 연구원 졸업생들과 신권 역원들.



최 동헌 최부친(왼쪽)과 부친(오른쪽)



우등상을 받은 최정신 자매(왼쪽)

서울 서 신학 연구원 제9회 졸업식 및 입학식이 9월 5일 3시 30분부터 많은 신권 지도자들과 졸업생, 신입생, 재학생, 학부모 그리고 친지 등 약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이번 졸업생은 11명이었는데, 이들 중에서 영예의 우등상은 제9와드의 김 정신 자매가 차지하였고, 동창회장상은 시흥 지부의 최 윤환 장로가 받았다. 이번 최 장로의 졸업으로 부친인 최 동헌 시흥 지부장과 동생인 최 경환(현재 해병대 근무) 형제와 더불어 3부자가 신학원을 졸업하게 되었다. 최 윤환 장로는 현재 서울 선교부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이날 참석한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흥 무광 북 스테이크 부장과 이 도환 원장 서리가 말씀하였고 이 호남 교회 교육 기구 대표가 격려의 말씀을 하였다. 말씀하는 가운데 “꽃이나 나무나 새나 짐승들도 자기의 임무를 다하고 있는데 인간은 영적인 훌륭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동물적인 만족과 쾌락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회복된

참된 복음을 통하여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였다. 한편 동 신학 연구원에서는 오후 6시부터 졸업식 및 입학식을 시작하였는데 서울 스테이크와 서울 동 스테이크의 신권 지도자들이 많이 참석하여 졸업생과 신입생을 격려해 주었다. 이날 10명의 졸업생 중에서 영예의 우등상은 제8와드의 배 동선 자매와 청운 와드의 황 성주 형제가 수상하였고, 공로상은 제8와드의 엄 규숙 자매가 받았다. 최 윤환 부장과 고 원용 부장은 참석한 250여 명의 성도들에게 영적인 말씀을 해주었고 서희철 원장과 이 호남 교회 교육 기구 대표가 말씀했다. 이번 1981년도 제2 학기에 등록한 신입생은 동 신학 연구원은 145명이며, 서 신학 연구원은 132명이나 되었다.

식이 끝난 후 신학 연구원의 전통인 떡잔치를 양쪽 신학원에서 베풀었고 신입생은 오리엔테이션을 받았으며, 졸업생은 동문회 모임을 가졌다. *



동 신학 연구원 졸업생들과 신권 역원들.



우등상을 받은 최정신 자매(왼쪽)



우등상을 받은 배 동선 자매(왼쪽)

표지에 나와 있는 그림은
 앞으로 건축될 교회의 새로운 신전의 모형도이다.
 상단의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것은 서독, 칠레, 통가와, 서사모아, 한국, 스웨덴,
 남아프리카, 필리핀, 타이티에 세워질 신전의 모형도이고,
 아래에 나와 있는 큰 것은 페루와 과테말라에 세워질 신전의 모형도이다.

